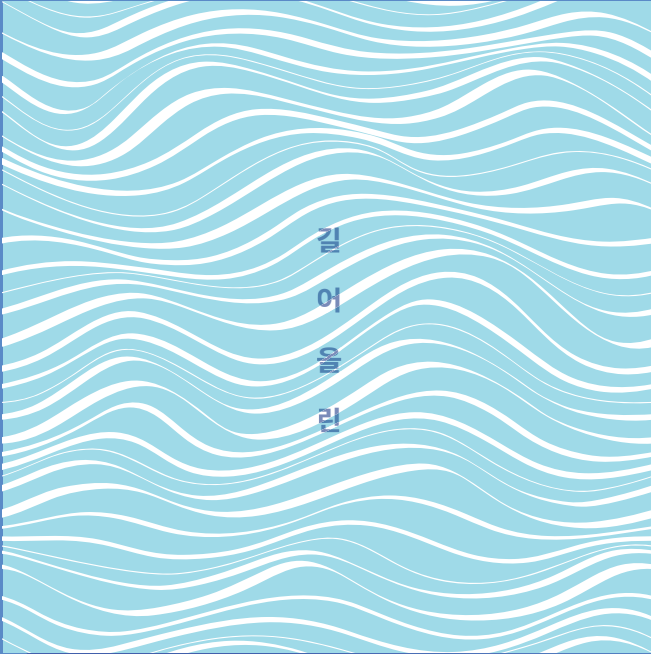


오늘을 사는  
청년 14명이



순간들의 이야기

# 경험의 샘

MOMENT

CAREER TOUR

# 경험의 샘

MOMENT



오늘을 사는

청년 14명이

끌어올린

순간들의 이야기



# M O M E N T

앞으로 내게 남은 길들이 하나같이 딱딱하고 어려울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의 나는 온전히 내가 주인공이었다. 나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해 사는 주인공.

이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숫자, 그  
속에 담긴 과정과 의미가 중요하니까.

자신의 흐름대로 살면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불행하지 않은 미래를 나아가거나  
그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삶은 꽤나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에 있어 모든 힘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거나 잊혀진다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으니 도전할 수 있다면 일단 실행해 보자.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내가 가고 있는 길과 내가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확신이 나를 조금 더 정신적으로 단단하게 만들고, 이는 내가 더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한다.

# — 목 차

## MOMENT ..... 돌아\_보다

# 01

이유정	나라는 사람	07
임수연	되돌아_보다	10
김용휘	이토록 나다운, 내 모습들	14
하루	평범함, 그 가능성	17
웬	챌린저스 다이어리	20
토토마을이장	내가 모르는 내 기분	23
에런	나의 변화, 그리고 도전	26
치즈전	내 삶에 등불을 비추며	28

## MOMENT ..... 내\_된다

# 02

쿠초냥	수의대생이 말하는 수의대생	33
제트	다시, 시작을 갈망하다	37
등냥	완주	39
치즈전	퍼즐의 기록	42
류동현	영화관에서	45
쿠초냥	인도, 82번지	47
도도도도	장미가 자라는 소년	52
웬	바다 너머 혼자	68

## MOMENT ..... 바라\_보다

# 03

하루	행복 대신 즐거움	73
류동현	엄마의 메시지	75
김용휘	다시 찾는 나만의 길	77
웬	숨, 삶, 그리고 나	80
세명	현재부터 미래까지	82
토토마을이장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84
세명	평범한, 그리고 나만의	89
제트	목표에 도착했습니다	91
	편집후기	94

# 01

## 돌아 | 보 다

A man who has been through bitter experiences and travelled far enjoys even his sufferings after a time.

**Homer, 'The Odyssey'**

자신이 공들이고 견뎌낸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슬픔조차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기쁨이 된다.

호메로스, '오디세이아'

## 나라는 사람.

나다움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마다, 나는 '가장 나다울 때가 나답다'고 생각하곤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나기에 나다운 것이다.

**이유정**

해맑고 다소 솔직한 휴먼. 나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이런 느낌일 것이다. 그만큼 나는 아주 평범한 얼굴을 띤 사람이다. 내 스스로를 잘 알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다 상황에 따라 웃고 울며, 감수성이 풍부하고, 조그마한 것에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감정을 무작정 표출하지는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나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곤 한다. 나를 보는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은 항상 내가 매우 밝고 늘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도 사람이라서 좋은 감정뿐 아니라 슬픈 감정, 힘든 감정, 억울한 감정 등 힘들고 슬펐던 시기를 똑같이 겪는다. 다만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어떻게 넘는지가 내겐 더 중요한 것 같다.

나는 취미가 많은 사람이다. 취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단 춤을 좋아하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춤을 쳤고 방송댄스반을 들어가 무대도 몇 번 나간 적이 있다. 어느 순간부터 춤을 추고 영상을 거의 매일 올리며 춤추는 날 보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또 다른 취미로는 일기 쓰기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누구나 한 번쯤은 써봤을 일기틀, 성인이 되고 난 지금도 쓰는 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다들 생각할 것이다. 재밌는 하루를 보내고 글로 쓴다는 게 흥미롭다.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내면 더 그 날을 떠올리며 생각한다. 추억을 회상한다고 하면 맞는 말이다.

운동을 즐겨하는 편은 아니지만 운동과 거의 비슷한 스트레칭을 한다. 격한 동작을 했을 때의 몸이 무리가 오기 때문에 내 근육 하나 하나를 열심히 풀어줘야겠다는 생각하고 유튜브로 스트레칭 영상을 검색하며 차근차근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매일 유튜브를 틀고 스트레칭 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자세와 균형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좋은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외에도 나는 나를 웃음짓게 하는 여러 취미들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구름 바라보기인데, 중학교 때부터 현재까지 구름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고 감수성이 풍부해진다. 아마 내겐 구름을 보면 행복한 상상과 좋은 생각만 들게 하는 마법이 걸리는 모양인지, 구름 사진을 찍고, 올리고, 다시 보면서 참 예쁘다고 감탄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영상 편집인데, 사람들은 의아해하지만 나는 영상을 찍을 때 즉흥적으로 찍어야 잘 찍힌다고 생각한다. 식사하다가 밥을 먹는 영상을 찍을 때도 있고, 친구와 함께 가서 찍을 때도 있다. 처음 편집을 할 때는 까다롭고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실력이 느는 것이 느껴졌다. 그 외에도 시간을 충실히 보내는 것을 즐긴다. 코로나 시국에 밖을 나가기가 꺼려지고 귀찮았을 때는 집에 사나흘 간 있으면서 보석 십자수와 컬러링북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폭 빠지는 것도 며칠 정도일 뿐 갈수록 점점 지루해지는 나를 발견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을 가질 때도, 바깥에 나갈 때도 있지만, 어느 때든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한다.

나다움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마다, 나는 '가장 나다운 때가 나답다'고 생각하곤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나기에 나다운 것이다. 사실 원래 내가 뭘까 등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nada움을 찾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나다운 삶이란 정말 나답게, 나 그대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삶을 이룰 수 있으려면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답을 찾을 수 있는, 타인이 아닌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껴야 모든 게 쉬워지고 편해 보일 것이다. nada움을 못 찾았더라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자기 자신이 만족하면 그만인 삶이 nada운 삶이

고, 누가 뭐래도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삶이 nada운 삶이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가야할 목적지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목적으로 갈 것인지,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명확해야 한다. 목적지가 정해졌다면 목적지로 가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자.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다. 가는 방법은 다양하고 넓다. 다만 우리가 안 가고 있을 뿐이다. 무엇이든 하고 난 다음에야 답을 찾거나 잘못됨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실패를 통해 또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 모두 자신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삶이기를 바란다. 나는 "뭘든지 잘 할 수 있어. 나는 뭘든지 해낼 수 있어" 라고 말이다.

# 되돌아 \_보다

나에게는 아픔의 순간이 있었지만 치유가 될 수 있는 존재와 이겨낼 힘이 있으며,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믿는다.

## 임수연

나는 총 3번의 이사를 했다. 부모님의 직업으로 인해 여러 번 이사를 반복하며 다양한 곳에서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을 보냈다. 최근 지인들 중 이사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다시금 원래 지역으로 이사 갈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의 학창시절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기준으로 지낸 날들을 생각해보니 진해에서 3년, 대전에서 3년, 평택에서 6년이였다. 물론 나도 친구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어려움, 그리고 그로 인한 성격변화와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거리낌이 생기며 점차 새로움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었다. 매 이사마다 항상 힘든 시간이 존재했지만 그 시간들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고 타인을 향한 벽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부터 그 계기들 하나하나를 풀어나가 보고자 한다.

진해는 나의 초등학교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공간이다. 이사를 한 이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여전히 그 때 살던 곳 주변 골목 하나하나부터 집으로 가는 지름길, 문구점까지도 생각한다. 토요일에 학교를 갈 때가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을 뛰어 놀던 때가 있었으며, 설레는 순간도 존재했었다. 급식실을 가기 전에는 네모의 꿈과 마법의

성을 많이 불렀으며 급식을 먹으면서 올바른 젓가락질을 배우기도 했다. 그때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현재의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래서 문득, 정말 문득 생각나곤 한다. 기억은 사진처럼 우리에게 남는다고 했던가. 여전히 나는 그 때의 기억들을 사진으로 간직하고 있으며 가끔 가다 펼쳐보곤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사진들도 있지만 남은 수많은 사진들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자리를 지키며 남아 있다. 어쩌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더 많이 생각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다.

대전은 나에게 온기와 후회를 함께 안겨준 곳이다. 가장 짧은 시간을 보냈지만 할머니댁이 위치했기에 너무나도 익숙한 공간이었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대전으로 이사를 갔다. 솔직히 진해에서 보낸 학교생활이 너무 임팩트가 커 생각이 나지는 않는다. 대신 가족과 함께 보냈던 기억이 많이 남아있다. 할머니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러면서 친척들 간의 왕래가 많아졌으며 재미있고 알찬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가족의 의미에서 확장된 범위까지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에 나는 너무나 후회한다. 감기처럼 찾아온 사춘기의 영향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 짧게 왔지만 아무리 짧아도 그 때의 내게 와서는 안 땀었다. 후회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곧바로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었고, 내가 잘못했던 순간들만 생각한다. 부모는 우리를 낳아 보살피며 사랑을 주는 존재이지만 조부모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만을 주는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의 일부분을 차지하던 누군가가 사라지면 그에 대한 아픔이 배가 되는 것처럼 할아버지는 나의 일부였고 많은 공간을 차지했다.

평택은 진정한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공허함만이 가득 찬 공간이다. 진정한 학창시절과 공허함은 모순된 표현일 수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진정한 학창시절'과 '공허함'을 경험했고 여전히 느끼고 있다. 친구관계와 성적에 매달리면서 그에 대한 아픔을 오롯이 받아들였던 중학생을 지나 보다 공동체적 안정감을 느끼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 나는 평택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개학일에 맞춰 학교에 입학했다. 150-170명 남짓한 전체 학생들 중 나만 교복을 입고 왔던 것이 생각한다. 나중에 물어보니 친구들은 나를 전학생이 아닌 교복 입고 온 친구로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충격적이었던 전학 첫 날이 지나고 다행스럽게도 나에게 다가온 친구들은 시기별로 있었다. 전

학 초기 아픔을 겪었던 이후로 말이다. 사실 그 곳에는 중학교 1개와 초등학교 2개 정도 밖에 없어 입학생을 기준으로 거의 반은 서로를 아는 애들이었기에 나에게 다가와 주던 친구들은 더 큰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전학 초기 한 명의 친구가 다가왔지만, 그는 내게 경멸스럽고 공허와 배신감만을 안긴 친구였다. 다행히도 순조롭게 해결되었으나 그 때 받았던 아픔은 아직까지도 애써 무시해야만 한다. 아픔을 겪은 이후에도 다가와준 친구들이 존재했다. 학교 후 우리 집에 가서 화장, 요리, 청소를 같이 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다. 아직도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 집은 언제나 이야깃거리의 주제가 되곤 한다.

특별하지만 평범했던 중학교 생활을 지나 나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같은 중학교에서 함께 올라간 중학교 친구들이 있어 외롭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처음 진학했을 때, 1학년, 2학년, 3학년을 보내며 항상 반끼리 뭉쳐 생활을 했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함께 하고 함께 모여 얘기하고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안정적이면서도 함께여서 특별하고 재미있는 생활을 했다. 사실 중학교 당시 받았던 상처는 솥사탕에 묻은 물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솥사탕에 물이 묻으면 저절로 스며들어 솥사탕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나의 관계의 안정은 서서히 무너져갔던 것 같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연락오기만을 바랐고, 내가 먼저 하더라도 상대가 확인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 수록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연락 자체를 회피하게 되었다. 그 결과 나의 기준에서의 진정한 친구는 생기지도, 남지도 않았다. 오히려 친구의 기준만 높아졌고 서로와의 관계에 대해 신경을 덜 쓰게 되었다. 상황에 따라 편리하기도 하지만 조금은 슬픈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친구란 연락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어쨌든 현재 나는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중이며 미래에는 현재의 나로부터 벗어나 변화하고자 한다. 언젠가 한 친구가 나에게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라고 했던 것처럼 나는 남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각 지역마다 보낸 시간들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단단해져 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나에게서는 아픔의 순간이 있었지만 치유가 될 수 있는 존재와 이겨낼 힘이 있으며, 불행이 있다면 행복 또한 찾아온다는 것을 믿고, 삶에는 기복이 있어 언제든 바

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믿는다. 이사를 통한 모든 경험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하고 좋은 싫든 모두 소중하다. 나는 무언가에 의해 망가지고 무너졌던 모든 것을 정리하며 부리를 단단하게 내리는 과정에 있으며, 이 과정의 끝에 나는 평화로운 '나'가 되어 있을 것이라 믿는다.

# 이토록 나다운, 내 모습들

나다움. 그건 누가 판단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일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항상 봐오던 내 모습을 나다움이라 여기지 않을까?

김용휘

‘그녀는 예뻐다’라는 드라마를 좋아했다. 단발머리의 고준희, 멋진 박서준도 매력적이었지만, 내게는 최시원이 맡은 캐릭터가 제일 매력적이었다. 드라마에서 정말 장난기 많고 너스레 좋고 능청스럽다. 아니, 무한도전으로 봤던 모습이라면 아마도 최시원도 비슷한 성격일 것으로 생각한다. 드라마를 웬만하면 끝까지 안 보는데 최시원이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봤다.

지금 나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별의별 자소서를 다 써 보고 면접도 봤는데, 한 회사도 나를 뽑아주지 않는다. 여러 컨설팅 프로그램에서 회사와 내가 맞지 않았다고 위로해 주신다. 나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를 위로하고 있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다. 최시원의 캐릭터가 매력 있고 너무 좋아서 드라마를 안 보던 나도 끝까지 봤는데, 기업들은 내 이력서를 보면 내가 매력적으로 보일까? 나와 같이 일하고 싶을까? 나는 어떤 캐릭터지? 내가 어떤 캐릭터인지 알고, 나의 매력적인 면 혹은 회사가 원하는 면 위주로 보여주면 회사가 나를 뽑지 않을까?

일단 이런 생각을 한 내가 너무 대견했다. 그간 취업시장에서의 캐릭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도 이렇게 이해한 건 오늘이 처음이다. 그리고 보니 정말 내가 어떤 캐릭터

로 보일지, 내 이력서를 보면 어떤 캐릭터가 떠오르는지 생각도 안 해본 게 정말 웃기다. 뭐,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다행이다 싶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성장 욕구도 강하지만, 의지력이 약하고, 그러기에 개선하려는 노력을 반복하는 사람이다. 욕심이 많기에 빨리 성장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 힘든 조건 안에 나를 놓는다. 내 성장이 눈에 보이면 성취감도 느껴지고 재밌다. 난 그게 즐겁더라. 하지만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 여러 일을 마구 벌이게 된다.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함이 쌓이면 일 하나하나를 끝맺지 못하기 시작한다. 마무리가 부담스러워지고 예전에는 심지어 도피했다. 게임이나 인터넷 등 머리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로 도피하였다. 내 욕심으로 일어난 일이니 자업자득이다. 의지박약은 내 욕심과 상관관계가 있다 생각한다. 그런데 요새는 그게 하도 반복되다 보니 그런 내 약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도피한다고 끝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게 또 하나의 성장인 셈이니 개선 방안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게 즐겁다.

스스로에 대해 쓰고 보니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기분이 든다. 문제를 찾아 시도해 보고, 피하다가 다시 해결하려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보면 회사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다. 내가 얼마나 문제를 잘 해결하는지를 설명해 주어야겠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쓰고 보니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예전에는 일만 벌이고 마무리를 잘 못했는데, 이제는 그 습관을 개선하고 해결하려 하는 내가 보이니 스스로가 대견스럽다.

근데 내가 원래 저랬을까? 그리고 저런 모습들이어야만 나다운 것일까? 돌이켜보면 스스로가 많이 바뀌었다. 일단 ‘원래 저랬을까?’에 대한 답을 해보자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만약 저런 성격이 없어도 내가 즐겁게 살았다면 굳이 저런 성격을 가지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봐서 그런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도전적인 첫 목표를 설정하게 된 계기였다. 그전에도 무언가를 해내면 성취감을 가졌지만, 어려운 도전적인 목표까지는 굳이 설정하진 않았었다.

그리고 보니 단점도 마찬가지네. 계산적이고, 급하고, 가성비 많이 따지고, 마무리하는 힘 부족, 민첩함도 부족. 이 모든 것이 다 환경과 연관이 있었다. 아 물론 급함과 민첩함



# 평범함, 그 가능성

나의 평범함은 하얀 도화지와 닮았다고 생각한다. 지난 시간 동안의 평범함 위에  
도전과 새로운 시도라는 도구를 통해 내 인생이라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

## 하루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이다. '평범하다'의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춘기가 크게 오지 않아서 엇나가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무난하게 남들 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공부를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취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음악 듣는 것과 산책하는 것을 좋아할 뿐이었다. 그래서 나에게 대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작성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과거의 기록을 찾아보면 글감이 떠오를까 싶어 지금까지의 일기장, 앨범, 휴대폰 속 갤러리 등 나에게 대한 온갖 흔적을 찾아봤지만 지극히 평범했기에 부족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어쩌면 이러한 평범함도 나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나의 평범함'에 대해서 글을 써 보려 한다.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생활에 성실히 임하며'. 12년의 학교생활을 하면서 생활기록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다. 생활기록부를 떠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소리도 '성실하다'였다. 그래서 그러한 단어들 아무런 특징도 없는 평범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 같아 나 자신이 눈에 띄는 특징이나 매력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은 장난기처럼 원래 있던 것 같다. 가성비 따지는 것과 계산적인 것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어머니가 덜 힘들어하시라고 모든 것에서 손해 안 보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고, 마무리하는 힘은 크게 성장하려고 분수에 맞지 않게 좀 많은 일을 벌여 놓다 보니 하나하나 잘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일을 벌일 때는 신나는데, 진행하고 마무리까지 짓는 데에 완벽주의까지 추구하게 되니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라도 알았으니, 더 쉽게 고칠 수 있겠다.

지금은 장점도 단점도 나름대로 인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고. 근데 적어놓고 보니 내 장단점들이 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조금씩 변해갔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기록된 나다움이라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저런 장점과 단점, 성격들은 조금씩 변해가는데, 그러면 나다움이라는 것도 변해가는 것일까? 나다움. 그건 누가 판단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일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항상 봐오던 내 모습을 나다움이라 여기지 않을까? 나 자신이 나다움을 판단한다면, 자기 신념대로 사는 게 나다움일까? '매 순간 즐기며 진심으로 살자'가 내 신념이다. 나는 내 신념대로 살고 있을까? 말만 신념이지 그저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닐까? 신념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신념처럼 행동해야지.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고쳐나가려는 저 성격과 장단점들처럼 내 신념도 내가 정말 목직한 즐거움을 느낄 때 느꼈던 그 생각대로, 매 순간 즐기며 진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노력해야겠구나.

그간 생각해 보면 겉에만 집중했던 사람이었다. 항상 원하던 모습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지만, 게으름과 귀찮음에 미루던 게 지금까지의 '나다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나름 글을 쓰면서 인지하게 되었다. 살짝 오그라들기도 하지만, 요렇게 조금이라도 행동할 힘이 생긴 건 정말 즐겁다. 아마, 지금 사회생활의 압박이 없기에 여유롭게 받아들인다고 느껴진다. 그래. 지금 취업준비 중이라고 주눅이 들지 말고, 취업준비도 하며 나다움도 찾아가고, 신념대로 살아가기 위해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생각하자.



또한 '평범하다'는 것을 재미가 없고, 남들과 다를 바 없이 뛰어난 점도 모난 점도 없는 것처럼 받아들였다. 나에게 있어서 평범한 삶은 하루하루가 마치 잔잔하게 흘러가는 물과 같았다.

문집 프로그램 편집자님께서, 나에게 대한 주제로 글을 쓰는 목적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기에 대한 애도라고 하셨다. 누가 믿지도 스스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고 있는 삶에 대한 애도. 한 해가 지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이 당연하듯이 아무런 의미 없이 남들 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고 학교생활을 하는 일상이 이어졌다. 그러한 평범함과 따분함이 지속되어서였을까. 앞으로의 인생은 새로움이 가득한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거창하게 말하면 도전이다. 하지만 도전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물론 지난 시간 동안 새로운 시작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나갔던 장기 자랑. 먼 곳으로 배정된 고등학교에서, 아는 얼굴이 한 명도 없는 반에 들어가 적응하는 것도 나에게서는 도전이었다.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이전 학년에서 같이 올라온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낯선 환경에서 먼저 말을 걸고 친구들과 친해지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다. 입학식 날 옆자리에 앉은 친구에게 말을 걸었고 곧이어 다른 친구들과도 친해졌다. 이때 먼저 말을 걸었던 작은 도전을 통해서 지금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약간의 어색함을 느끼며 말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다른 도전을 꼽자면 재수를 들 수 있겠다. 고등학교 때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만 평범하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치열하지 않았던 나의 자세에 후회가 남았고, 나의 한계를 이겨내고 싶었다. 재수는 여태까지 했던 사소한 도전과는 다르게 처음으로 했던 큰 도전이었지만 노력과 결과가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었다. 수능을 마치고 나서, 결과와 상관없이 열심히 했으니 됐다는 후련함보다는 도전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그냥 고3 때 붙은 학교에 갈걸. 내가 왜 시간과 돈, 에너지를 낭비해가면서 이 고생을 했을까? 여태까지 살아왔던 대로 물 흐르듯이 평범하게 살걸, 하면서 자책을 많이 했다.

그럼에도 현재의 나는 도전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마지막 수능 이후, 몇 년이 지난 지금을 보면 재수를 선택하지 않아서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미련이 남는 것보다 원치 않

은 결과를 얻더라도 최선을 다했던 선택이 후련하고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지난 과거를 떠올려보면 시도를 해서 후회했던 것보다 시도하지 않아서 후회했던 것이 더 많았다. 3년 동안 좋아했던 친구에게 좋아한다고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졸업한 것. 조장만 하고 반장, 부반장, 전교 회장 등은 시도도 안 해본 것. 결과를 떠나 한 번만 눈 감고 용기를 냈으면 되는데, 평범함에 익숙해져 버린 것일까?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모든 선택에는 후회가 따르겠지만 기왕이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즐겁고 덜 후회하는 선택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평범함의 익숙함이 싫어서 다양한 것을 도전해 보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평범했던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다. 과거의 순간순간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평범했기 때문에 여러 도전을 하고 싶은 것 같다.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때, 그리는데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서 완성된 작품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처럼 나의 평범함은 하얀 도화지와 닮았다고 생각한다. 지난 시간 동안의 평범함 위에 도전과 새로운 시도라는 도구를 통해 내 인생이라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 잔잔하게만 흘러가던 물도 노을이 비쳤을 때 보면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처럼 평범함은 오히려 색다름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나의 평범함을 발판으로 삼아, 다채로운 도전을 하며 달려가야겠다.

# 챌린저스 다이어리 (Challenger's Diary)

인생에 있어 모든 힘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거나 잊혀진다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으니 도전할 수 있다면 일단 실행해 보자.

## 헨

사범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지만, 좋아하는 건 여행, 전시, 문화교류 등이고 잘하는 건 디자인, 중국어다. 디자인을 잘한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동아리에서 홍보 포스터나 동아리 티셔츠를 제작했는데 동아리 임원들이 계속해서 칭찬을 해 준 덕분에 나 스스로도 잘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디자인 등 예술 공부에는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디자인과는 취업이 어렵다, 타고난 재능을 가져야 성공한다, 돈이 많이 든다'는 주변의 말에 미뤄왔다.

중국어는 내 20대의 절반을 함께한 외국어다. 스무 살까지 영유아 수준의 중국어를 구사하던 내가 대만 유학을 시작한 뒤론 타지에서 생존을 목적으로 중국어 공부에 전념했다. 누구보다 진심으로 꾸준히 공부했더니 실력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해 유학 3개월 만에 대만 친구와 일상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1년 만에 대학 수업 발표를 하게 되었다. 대만 영화를 보고 있는데, 왠지 모를 허전함에 이유를 찾다가 자막 없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던 때, 마음 한편으로 꽤 뿌듯했다. 그리고 순간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겼고 '이 정도면 대만에서 일도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다.

내 첫 아르바이트는 한국 대학 입학과 동시에 시작했다. 옷가게부터 시작해서 과일 시

식, 한국잡월드 보조스텝 등 꽤 여러가지 일들을 했다. 한국어로 일하는 것도 힘들어서 녹초가 되어버리는 판국에 타지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며 일하는 게 가능할 지 고민이 되었지만, 꽤 넘치던 스물한 살의 나는 아르바이트를 찾던 끝에 마침 대만 한인 커뮤니티에 학교 근처에 있는 한국식 카페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다. 카페는 한국인 사장님과 대만인 아내분이 하시는 가게였는데 내부가 매우 아기자기했다. 주 메뉴는 호떡이고 떡볶이, 빙수, 그리고 유자차 등 음료를 팔았다. 호떡은 한국에선 흔히 볼 수 있는 간식거리지만 대만사람들에겐 처음 보는 음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만 손님들의 평가에 따르면, 계피의 맛에서 호불호가 갈렸지만 대체적으로 맛있다고 했다. 한국 디저트의 맛을 널리 알린 애국자가 된 기분이었다. 문제는 저 당시 대만 시급이 150원, 한국 돈으로 약 6천원에 불과했다. 현타를 느끼며 일하다가 그만 두게 되었다.

두 번째 아르바이트는 중고서점에서 헨 책들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세상에 이렇게 시끄러운 서점은 처음이었다. 서점 안에서 제일 시끄럽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점장님이셨다. 점장님은 손님들과 이야기하다가도 갑자기 목청껏 성악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손님들은 이에 익숙한 듯 노래에 호응했다. 생각지도 않은 분위기의 서점이었다. 점장님은 오페라를 좋아했기 때문에 서점에서도 가끔 내게 성악을 불러주었고 공원에서 산책할 때도 성악을 불러서 사람들이 도망간다며 유쾌히 웃으셨다. 세상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점장님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존경스러웠다. 서점 고객들도 단골 손님이 많았다. 주식, 역사, 음악 등 손님들과 흥미로운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마치 라디오를 들으며 일하는 느낌이었다. 여기서 일하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싶었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점장님이 서점 운영을 축소해서 아르바이트생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었다.

그 외에도 한식당 아르바이트, 한국어 과외, 유튜브 자막 번역 등 여러 일을 하며 뭔가 색다른 일을 해보고 싶었다. 페이스북을 찾다가 打工度假라고 불리는, 대만에서 1년간 일하며 즐기는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있고 그 제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다녀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급이 없는 대신 그곳에 묵으면서 여행도 다녀오고,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는 취지인 것 같았다. 현재 살고 있는 타이베이 시에서 약 300km 떨어진 곳인 타이둥 현의 카페와 민박을 같이 운영하는 곳에 지원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앞에 태

평양이 보였기 때문이다. 타이둥은 대만의 남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태평양과 맞닿아 있어 푸른 바다를 볼 수 있으며 서핑하기에도 좋아 국내외 여행객들이 자주 오는 곳이다. 신청한 지 3일 뒤에 두근거리는 마음과 캐리어를 이끌고 향한 그 곳에는 대만 각지에서 온 대학생들이 5명 더 있었다. 바에서 음료를 제작하거나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손님이 퇴실하면 정리 및 청소를 했다. 팽별에서 밀짚모자를 쓰고 떨어진 나무 열매들을 빗자루로 쓸며 하루를 시작했고, 칵테일 만드는 걸 구경하거나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타이둥은 대만어(臺語)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잘 알아듣지 못했고 새 단어들을 단시간에 익히려 하니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작 한달이었지만, 중간에 가족과 친구들이 보고 싶어 혼자 바닷가에 앉아 울었던 것이 기억난다. 너무 쉽게 도전을 해버렸나 자책하다가, 쉬는 시간에 바닷가에서 여유를 즐기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예쁜 노을과 야경을 보러 다니면 힘든 게 금세 사라졌다. 인생에 있어 모든 힘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거나 잊혀진다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으니 도전할 수 있다면 일단 실행해 보자. 자신이 원해서 선택한 거라면,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해결될 것이라고, 잘될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외쳐보자. 이는 문제를 해결할 용기를 주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미 해결되어 있을 것이다.

## 내가 모르는 내 기분

내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타인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내 스스로를 중심에 두기로 다짐했다. 선명한 내 모습이 조금씩 느껴지는 요즘 나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다.

### 토토마을이장

오늘 기분이 어때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가장 대답하기 힘들어하는 질문이다. 솔직하게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기에, 주로 '나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곤 했다.

대학을 막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내 모습은 지금보다 더 불안하고 조급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내 성과가 잘 드러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정작 가장 중요한 내 감정을 마주하는 것을 회피했다. 감정을 회피하고 포장하는 능력이 늘어갈수록 두터워진 방어기제 때문에 나만의 공간에서 나 혼자 있을 때조차 내 모습을 온전히 마주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헷갈렸다. 사람들이 밝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넘어서서 사용하곤 했고, 밤늦은 시간 혼자 집에 들어오면 충전기를 꽂아도 바로 켜지지 않을 정도의 완전 방전 상태가 되었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혼자 있는 시간을 갈망했다.

내 몸에 여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도 그 무렵부터였다. 하루 내내 열감과 두통에 시달려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하는 일이 많던 나는, 출근하기 전 항상 회사 근처 약국

에 들러 텍사부프로펜 성분의 진통 소염제를 구입했다. 어찌나 자주 방문했던지 약사님께서 날 보시면 별 말이 없어도 약속이나 한 듯 그 약을 내 주실 정도였다. 설상가상으로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마음 속 공허함도 날 따라다녔고, 이 공허함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 폭면과 폭식을 반복했지만 음식이나 잠으로 채워질 공허함이 아니었다. 어느 순간에는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다가도 그 뒤에는 곧장 불안감이 따라왔고 그 때마다 그 감정들을 숨기기에 바빴다. 타인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란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다. 그렇게 감정을 숨기면 숨길수록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에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무의식에 감춰져 있었던 불안은 꿈에서 나타나기도 했었고 우울감을 가져오기도 했었다.

환경을 달리하면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전부 다 무시한 채 회사를 세 번 옮기기도 했다. 회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이유는 단순했다.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면 불안도 공허함도 사라지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허함은 타인의 인정으로 채워지지 않았고 결국 몸과 마음 모두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되고 난 후에야 나는 스스로 아프다는 것을 인정했다.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이걸 받아들이자 나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내 몸이 이렇게 된 건 내 탓도 아니고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다.

지금의 나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설피게 해석하지 않으려 노력 중에 있다. 인간은 저마다 타고난 기질이 있고 이는 성격과 다르다고 한다. 나는 나를 알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왔다. 여러 가지 검사 중에서도 기질 및 성격검사(TCI Test)를 통해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나는 액셀과 브레이크가 함께 놀리는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호기심이 많음과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확신이 서지 않으면 실행에 옮기기에 두려워하는 편이기에, 종종 누군가와 약속을 미리 하지 않고 갑자기 사람을 만나거나 외출하고 거의 항상 만나던 사람을 만나거나 과거에 자주 방문했었고 좋아하는 음식점만 방문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바라보는 나는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해 보이지만 나의 관점에서는 항상 익숙함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적어도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는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하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나는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를 시작할 때 불안한 감정

을 갖는 것을 타고난 기질이라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노력하고 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들고, 왜 이럴 때 이런 행동을 하며, 이 감정은 어디에서 왔는지 굳이 분석하려 들지 않고 감정을 곧이곧대로 느껴보려 노력하고 있다. 나는 이럴 때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냥 이런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려 한다. 비록 양가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직은 어렵고 연습이 많이 필요하지만, 1년 후의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흐르는 대로 받아들이려 하는 것이다.

과거의 나는 누군가 오늘의 기분을 물을 때, 상대방이 나를 걱정하지 않도록 포장하기 바빴다. 감정이 옳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에 부정적인 변화가 오는 게 아닐까 그걸 두려웠다. 하지만 타인의 기분은 타인의 것이니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내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타인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내 스스로를 중심에 두기로 다짐했다. 아직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적어도 그렇게 마음먹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내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의 기분을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된 지금은 무언가에 대한 가치판단이 이전보다 어렵지 않다. 요즘은 전신거울 앞에서 꾸미지 않은 내 모습을 바라보는 일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곤 한다. 거울을 통해 보는 내 모습은 분명 타인이 보는 나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 속 내 눈을 바라보다 보면 내가 내 감정을 조금은 인지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상담사와 마주하는 심리상담실의 문이 마치 해리포터에 나오는 킹스 크로스 역 9와 3/4 승강장과 같은 다른 차원의 문처럼 느껴지곤 한다. 상담실 문 밖의 나와 상담실 안 내 모습의 간극이 아직까지 꽤 크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내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며,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부끄러운 모습과 기억도 다 꺼내 이야기하며 울고 웃는다. 타인에게 불편한 감정상태를 솔직하게 내비치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나를 표현하며 바뀌는 미묘한 감정변화와 마음을 통해 희미했던 내 모습이 조금씩 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선명한 내 모습이 조금씩 느껴지는 요즘 나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다.

# 나의 변화 그리고 도전

하나하나씩 도전하고 그 도전을 행해가면서 제 스스로를 이뤄가고 싶습니다.

에런

저는 부끄러움이 많고 조심스럽지만, 그 누구보다 마음속에선 활동적이며 다양한 걸 즐기고 싶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MBTI에서 I지만 E를 부러워합니다. 처음 마주하는 사람들과는 많이 거리를 두고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고, 걸으로도 많은 거리가 느껴지게 행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활동적인 면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고, 그 경험을 쌓고 즐기고 싶어하죠. 하지만 아직 그것이 걸의 행동으로 나타내기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의 성격이 변화하게 된 계기는 저희 집에 온 새로운 가족 덕분입니다. 저를 좀더 활동적인 태도를 갖게 해 준 계기가 되었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에 새로운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600g의 아주 꼬꼬만 몸을 가진 토이 푸들이었죠. 처음에는 강아지 공포증이 있을 정도로 강아지를 무서워해서, 길에 강아지가 지나가면 최대한 돌아서 회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새로운 가족을 들이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의견에는 극구 반대했었지만, 동생과 엄마의 강력한 회유에 의해 강아지를 집으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귀요미는 저에게 매력을 철철 흘리며 저를 매혹시켰어요. 그래서 넘어간 저는 현재까지 훌쩍 빠져 삽니다. 매일매일 귀여움이 날로 더해져만 가요. 처음엔 손바닥만했던 강아지가

어찌나 먹는 걸 좋아하는지 이제는 6kg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귀엽습니다. 이 강아지가 없었다면 저희 가족의 분위기가 지금과 같지 않고 삭막했을 것 같아요. 제게 원래 없던 애교가 강아지 때문에 생길 정도였으니, 저희 집 강아지와 함께하며 저 스스로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제가 앞으로 잘고자 하는 인생을 표현할 단어를 생각하다 '도전', 그리고 '행함'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이 두 단어를 꼭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도전을 두려워하고 행하는 것을 주저하다가 마지막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하는 성격을 가져서 어떤 일이든 선뜻 나서지 못하고 번번히 기회를 놓친 적이 자주 있어서 많은 후회를 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 때문에 도전과 행동을 더더욱 멈추게 되었죠. 하지만 늘 마음 속에 생각하기엔 어떠한 것에 도전하고 싶고, 그 도전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높디높습니다. 이번에 모먼트라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저의 마음에 새겨둔 하고 싶었던 것들, 해야 하지만 미루고 있던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집에서 가만히 있기만 했다면 지금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이 멋있다 라고 느끼게 되었고, 저도 무언가를 이뤄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에 이번 글쓰기에 참여하여 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도전하고 그 도전을 행해가면서 제 스스로를 이뤄가고 싶습니다. 집에서만 가만히 멈춰 있는 내가 아닌, 더 풍부하고 다양한 매력을 가진 제가 되어 나가고 싶어요. 코로나 상황이 점차 나아지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저의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도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최근 영어회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의존적으로 살아왔지만, 도전과 행함을 하고싶은 저에게는 독립이 필요함을 느껴 정신적인 독립을 이루고 싶습니다. 워드 코로나 상황이 된다면, 독립 연습을 위해 제주 한달살이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한달살이 동안 제가 독립성을 키우고 성장하는 제가 되길 바라며, 나중에 다시 이 글을 읽었을 때에 저에게 많은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내 삶에 등불을 비추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다. 나에겐 나만의 레이스가 있다고.

## 치즈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야 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다녀야 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삶을 꾸리고, 그러다가 은퇴하여 노년을 보내는 것. 이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삶일 것이다. 내가 생각했던 삶도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림이었다. 나는 아주 막연하게 나의 미래를 생각하였다. '좋은 엄마가 되는 것'. 아이들에게 풍족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항상 마음을 다스리는 것 등의 세부적 사항들은 고려하지 않는 지극히 일차원적인 미래.

그래서 그런 걸까. 어느새 나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많이 보았던 만화나 소설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정말 바빠 살아왔는데 모아둔 돈도, 그럴듯한 직장도 없는 30대의 여자. 성격도, 환경도, 이름도, 모든 게 다른 그들인데, 그들을 표현한 문장은 같았다. 그리고 그러한 클리셰 같은 주인공 묘사는 이내 나를 표현하는 단어가 되었다. 아주 익숙한 문장이지만 한 번도 그제 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는데, 참으로 웃긴 일이었다.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가끔 게으름을 부리고 밤을 새며 영화를 보거나 한 적은 있었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넌 바쁘네'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다. 다만 지금 돌

아보면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대로 생각했던 것 같다.

사실 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보다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고, 삶이 힘들 때는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다. 물론 살아오면서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그것은 항상 짧게 찾아왔으며 나를 버티는 힘이 되어 주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서 삼풍백화점 붕괴현장에서의 생존자가 겪은 트라우마를 알려주며 던진 한 마디 말이 있었는데 순간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찌르른 느낌을 받았다. '차마 죽지 못해서 산다라는 말은 사실은 살고 싶다는 말과 동일하다'. 난 항상 내가 용기가 없기 때문에 죽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 한 구석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살고 싶다고 소리친 게 아니었을까? 다만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니 원래 살고 싶지 않았다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면서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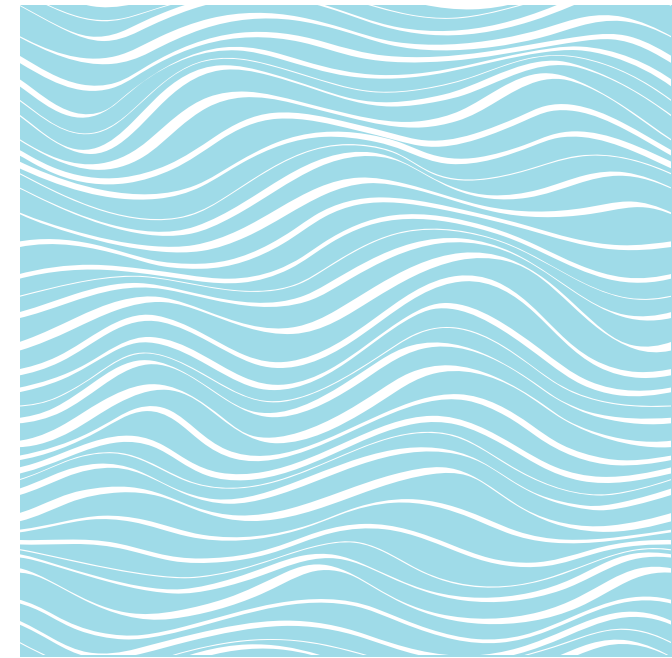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난 스스로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어렸을 적에는 나보다는 주변과 어른의 의견 또는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나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른인데 왜 난 아직도 어렸을 때의 기억에 휘둘려서 나 스스로의 삶을 가꾸지 못하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

그 때부터 나는 내가 온갖 현실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며 포기했던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기 시작했다. 흥만 많고 노래는 못하니 배워도 효율이 없을 거라고 했던 보컬 트레이닝,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PT, 그리고 근력이 없으면 못할 것 같았던 폴 댄스까지. 내가 못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새로 발견하는 것도 흥미로웠고, 무채색이었던 내 삶을 다양한 색으로 꾸며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예전에는 옆을 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가는 경주마 같았다면 지금은 천천히 풀숲도 가 보고 들판도 가 보고, 가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 구경도 하고 시원한 물도 마셔 가면서 천천히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 곳으로 여행하며 살아가는 기분이 들었다.

물론 때때로 내 또래가 가고 있는 속도 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많지만 그 때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다. 나에겐 나만의 레이스가 있다고. 그리고 아주 신기하게도 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가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8월부터 듣게 된 서대문구에서 하는 청년 프로그램에

서 많은 직업군에서의 멘토들의 스피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창업과 관련된 회차도 있었다. 처음에는 나랑 상관없는 스피치라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는데, 순간 내가 항상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내가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날 밤 나는 흥분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밤을 새서 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켰다.

물론 아직까지도 시작단계로 가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그저 흘러가는 대로 무의미하게 삶을 살지 않고 나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삶을 다채롭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과 또 그 다음 내일이 기대가 된다. 항상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청소년시절의 나를 생각하면 상상도 하지 못할 큰 변화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다.



# 02

## 내 | 딛 다

Nothing is a waste of time if you use  
the experience wisely.

**Auguste R. Rodin**

경험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어떤 일도 시간 낭비가 아니다.

오귀스트 로댕

## 수의대생이 말하는 수의대생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나만의 길을 걸어 가는 것에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다.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설렌다.

쿠초냥

어릴 때부터 생명에 대해 배우는 것을 참 좋아했다. 이 작은 생명체 안에도 이렇게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한 시스템이 있다니, 이 생물이 현재의 이러한 모습이 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과 확률을 뚫고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모든 생명들이 경이롭게 보였다. 가장 고등한 생물인 인간을 배우면 더더욱 그렇다. 인간의 생물학적 시스템은 너무나도 복잡해서 배울 때마다 머리가 터질 듯하다. 많은 양의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고 난 후엔 이렇게 머리 아플 정도로 복잡한 시스템을 나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경이롭게 느껴지고,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는다. 생물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했고,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계기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곧, 내가 이렇게 대단한 생명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에 정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나는 미래의 수의사이다.



사실 입시를 할 때 까지만 해도 수의대에 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나는 수의대가 아닌 다른 6년제 대학을 목표로 했고, 그 대학이 아닌 수의대에 붙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수의사가 대충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치료하는 것 이외에 뭘 하는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전혀 몰랐다. 그래서 입시가 모두 끝나자마자 '수의대 알기 프로젝트!'라는 계획을 바로 세웠다. 아직 대학도 안 간 햇병아리지만, 수의대생이 된 이상 이 필드에 대해 많이 알고 싶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선 내가 수의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필드라고 생각하는 반려동물 쪽을 알아봤다. 수의대 하면 동물병원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나는 알고 있는 동물병원을 모두 검색해 관련된 글을 꼼꼼히 읽어봤다. 이외에도 '수의사', '반려견', '반려묘' 등등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문구가 있었다.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였다. 유기동물에 관련된 내용이 공통적으로 등장했고, 이게 수의대 쪽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라고 생각해 바로 집 근처의 유기견 센터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다. 유기동물 센터의 글들을 읽어보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반려동물 시장에 관한 정보가 많은데, 직접 뛰어들어 봉사하고 경험하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3개월동안 봉사하면서 관계자 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고, 펫샵, 브리더 시스템, 셸터, 동물 복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제도적인 문제, 법과 관련된 분야의 얘기까지 들을 수 있었다.

조금 더 알고 싶은 욕심이 났다. 유기견 봉사를 다니며 가장 많이 들은 '동물복지'에 대해 알고 싶어 동물단체 'KARA'와 'Care'의 회원으로 가입해 단체에서 진행하는 거의 모든 캠페인과 행사에 모두 참가했다. 거기서 개, 고양이뿐 아니라 여러 동물과 관련된 동물 복지 현황과 우수 사례들을 공부할 수 있었고, 법정, 토론회, 모의 협회 등 동물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에 참여했다. 수의대에 입학하기 전까지 반려동물 시장-동물 복지-법/제도 점점 넓어지는 범위로 공부와 경험을 하며 이 상관관계 사이에서 수의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했다.

나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그냥 '동물병원 수의사'가 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분야를 건드려서 넓은 범위에서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야 더 많은 생명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 입학 전이라 많은 것을 모르는 상태였지만, 내가 기대한 것은 '수의사'가 아니라 수의계에 종사하며 수의계 혹은 그 이상의 필드에 걸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수의대는 6년제로, 예과 2년과 본과 4년이 혼합된 형태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보통 예과 때는 타과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교양과 전공 기초 과목을 많이 배우고, 공강도 꽤 많은 널널한 시간표를 가진다. 그러나 본과때는 일명 '공부 지옥'에 갇혀 밤낮 없이 공부만 해야 하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수의대 학생들은 예과 때 최선을 다해 논다. 나는 이 2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동기들은 놀기 바쁘고 교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세미나, 교육 등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위주이기 때문에 진로가 분명한 수의대생이 참여하긴 어렵다. 참여하러 가도 '필요가 없을 것인데 왜 왔냐',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교내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찾아보고, 도전했다. 1학년때 인턴이나 실습을 꼭 해보고 싶어 5군데에 지원을 했는데, 다 거절을 당하고 1군데에서만 연락이 왔다. 수의사 출신 교수님께서 계신 아산병원의 비교병리 연구실에서 감사하게도 실습생으로 받아 주셨고, 한달간 열심히 배우며 참여했다. 교수님께서 틈틈이 상담도 해 주셨는데, 얼핏 책에서 읽은 '원헬스'(주석 처리 필요 : 원헬스: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 @OIE)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리자 많은 가르침과 기회를 주셨다. 사람 병원에 수의사가 일하는 자체가 원헬스 그 자체였고, 교수님을 본받고 싶단 생각에 이 분야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이 생겼다. 2학년, 원헬스를 가장 많이 다루는 보건 분야를 탐방하며 조금 더 진지하게 진로 고민을 했다. 동시에 임원직, 자격증, 봉사 등등 다양한 일들에 도전하며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했다.

내가 예과 때 도전한 일은 보통 고학번 선배들이 많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어딜 가나 튀는 아이였고, 신기하던 시선과 따가운 눈총들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보내온 예과 2년은 조금 외로웠다.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 게 불안하고 외롭게만 느껴졌고, 때론 저학년의 역량으로 해 내기 어려운 일도 있어 힘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던 건, 입학 전 세웠던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예과 과정 동안 좋은 수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로 우선 좋은 사람, 좋은 학생이 되려 했다. 수많은 생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우선 내가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또 배워 나가는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역시 경험이라 생각해 여러 기회에 도전했고,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나의 모습에 부듯했다. 도전에서 얻는 성취감도 정말 좋았지만, 나를 알 기회를 가졌던 것, 그로부터 스스로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 알아갔던 것이 내겐 가장 소중한 것. 예과 동안 나는 다양한 경험을 하며 많은 배움을 얻었고, 그 과정의 매 순간 생각하고, 느끼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후회 없는 생활을 했다.

본과에 진학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 후, 이제 나는 본과 1학년 학생이 되었다. 이제 진정으로 좋은 수의사가 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길 앞에 서 있다. 선배님들께 들었던 대로 해야 하는 공부가 정말 많고, 부담스럽고, 밤낮없이 공부하느라 몸도 많이 상했다. 일주일 내내 시험을 보는 때가 잦고, 낮 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계속 실습 시험을 친 적도 있었고, 밤을 새고 본 시험을 마치고는 쉬지도 못한 채 수업과 실습에 간다. 거기다 내 욕심으로 학교 공부 외의 여러 일을 하며 배워가는 중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많이 힘들지만,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나만의 길을 걸어 가는 것에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다. 이 과정을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설렌다.

나는 나의 일과 공부를 사랑한다. 나의 현재 목표는 모든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훌륭한 수의사가 되어 WHO와 같은 보건 기구에서 일하고 싶다. 앞으로도 나는 나의 길을 찾고 그를 따라 행복하게 도전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내일, 내년, 그 후의 내 미래에 나는 무슨 일과 공부를 하고 있을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어떠한 가치를 실현할지 많은 기대가 된다.

## 다시, 시작을 갈망하다

앞으로 내게 남은 길들이 하나같이 딱딱하고 어려울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의 나는 온전히 내가 주인공이었다. 나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해 사는 주인공.

### 제트

새로운 시작과 관련된 속담으로 '새도 앉는 데마다 깃이 든다'는 속담이 있다. 참 찰떡같은 말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어디 한 곳 고정됨 없이 자유롭게 날고 앉는 새도, 날아가다 어딘가에 앉을 때마다 자신의 몸에 붙은 깃털을 조금씩 날려먹는다는 이 속담에 무릎을 탁 치게 된다. 정말 그렇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에는 분명히 버려지는 것들이 원했던 원치 않았던 생기는 셈이니까.

2016년 가을, 그러니까 벌써 5년 전의 일이다. 통영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나는 여러 방면에서 심적으로 몰려 있을 때였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싫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음식과 안정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고, 누구도 나에게 이런 생활을 끝내라고 외친 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새로운 순간을 갈망하고 있었다. 원래부터 다른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던 내게 통영은 사투리밖에 할 수 없는 곳이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말해주고 싶었기에 통영은 나에게 너무나도 좁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던 때, 부모님과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싸운 다음 날, 집에 홀로 남은 나는 갑자기 집을 떠나고 싶다는 강렬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캐리어 2개를 들고 버스 터미널로 달려가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음에도.

그렇게 캐리어 2개를 끌고 무작정 올라온 서울에서 맑은 공기! 남들은 서울의 공기가 나쁘다고 하지만 나에게서는 달콤하기 그지없는 공기였다. 버스에서 내려 그 공기를 있는 힘껏 들이마시는 순간 나는 그 당시의 인생 가장 강렬한 기쁨과 오롯이 홀로 마주했다. 자유였다. 익숙한 곳에서의 생활을 뒤로 하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던 것을 찾기 위해 떠난 나에게 서울은 비록 매연이 섞인 공기였지만 짜릿함으로 내 속에 들어왔다. 분명히 앞으로 내게 남은 길들이 하나같이 딱딱하고 어려울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의 나는 온전히 내가 주인공이었다. 나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해 사는 주인공. 터미널 앞에서 공기를 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이 신기했던지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으면서 스쳐지나갔지만 아무래도 좋았다. 웃기면 웃으라지. 나도 이제야 남 신경 안 쓰고 원하는 만큼 내 마음으로 올 수 있는걸.

그렇게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서른이 넘는 삶을 살던 어느 날, 그 옛날 통영에서 만났던 지인이 서울로 올라올 일이 있어 만나게 되었다. 오랜만에 만나서 오히려 할 이야기가 딱히 없을까 싶어서 걱정했는데 막상 만나니 이야기꽃이 오히려 너무 퍼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고 지내다가 문득 친구가 내게 물었다. "이렇게 떠난 것, 후회하지 않아?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라고. 그러나 나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그 때로 돌아간다면 다름없이 다시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때 말았던 그 서울의 공기의 전율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출발을 그렇게나 갈망해서 그런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나는 가까운 미래에 창업이라는 또다른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 고생길 또한 예전만큼이나 험해 보여도, 이 또한 스스로 결정하여 이렇게 새로운 길을 또 선택하는 것을 걱정하고 좀더 안정적인 직장에 경력직으로 취직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분명히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날아갈 것이다. 새로운 순간을 향해서, 새로운 시작이 나에게 선사했던 그 심호흡의 짜릿함을 위해서.

## 완주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내가 가고 있는 길과 내가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확신이 나를 조금 더 정신적으로 단단하게 만들고, 이는 내가 더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한다.

### 동냥

목표, 그리고 노력. 이보다 더 내 생각과 맞고 내가 살아온 삶과 일치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을까? 모르긴 몰라도 그만큼 잘 맞아 떨어지는 단어를 찾기는 정말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 난 항상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내가 정말 하고자 했고 하고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 보니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으나, 몇 안 되는 그 목표들은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 이루었다 말할 수 있겠다.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나뉘 본다면 목표 자체를 낮추는 방법과 기존의 목표를 그대로 두고 노력을 더 투입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먼저 목표 자체를 낮추는 방법이 있겠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평소에도 많이 그리고 자주 접할 수 있는데 피곤해서,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등의 이유를 붙이며, 현실과 나 자신과 타협하여 내일부터 하자 다음부터 하자 그냥 하지 말자와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모두가 경험해 본 적 있을 것이다. 작은 생활 습관과 같은 작은 목표들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시험 합격과 같은 일생의 큰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경험한다. 나의 경험을 예로 들면 나는 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몇 년 동안 계속하여 공부했

지만 계속되는 실패만 맛보았다. 1년에 1번 있는 시험의 결과가 나쁘면, 그 다음 도전을 위해서는 1년이라는 인생과 1살이라는 나이를 베팅해야 했다. 계속되는 실패의 시절, 나는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었고 원래 목표하던 시험이 아닌 그보다 비교적 쉬운 다른 시험이 눈에 들어왔고, 현실에서 도피하듯 '이것도 좋은 직업이지'와 같은, 소위 정신승리 하며 다른 시험에 도전했다. 그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내가 느낀 점은 내가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확신과 내게 필요한 것은 현실도피가 아닌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이를 수 있는 작은 성취감이라는 것이었다. 시험 합격의 기쁨보다는 나도 할 수 있구나, 내가 해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와 같은 자신감 회복이 내가 목표를 낮추고 난 후에 얻은 결과였다.

성과를 얻고 다시 원래 목표했던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이전과는 다름을 느꼈다. 이전보다 더 노력할 수 있었고 더 오랜 기간 공부할 수 있었다. 이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내가 하는 공부의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이보다 더 노력하는 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에 임했었지만, 돌이켜 보면 사실은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지 않았었고 더한 노력을 투입할 수 있었다. 나는 한계라고 생각했던 수준의 노력을 투입하는 상태에서 목표를 위해 더한 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내가 가고 있는 길과 내가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확신이 나를 조금 더 정신적으로 단단하게 만들고, 이는 내가 더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결국은 목표를 달성하여 성공이라는 크나큰 성취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살아가며 예전보다는 저리한 문구가 전달해 주는 의미가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느낀다. 큰 꿈을 꾸기에는 너무 팍팍해진 사회, 노력이라는 것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재, '소확행'이라는 것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할 정도로 큰 꿈을 좇으며 어둠속을 헤쳐 나가기보다는 작은 것들을 확실하게 이뤄가며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큰 꿈을 꾸고 싶다.

큰 꿈을 꾸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노력은 결국에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쉽고 간단하며 확실한 것이 우리 주변에 또 없다고 믿기 때문에.

# 퍼즐의 기록

나는 서로를 위해  
그 관계를 마음 속에서 놓아주기로 했다

## 치즈전

관계라는 단어. 참 많이 쓰이고 많이들 말하는데 정확히 설명하고자 하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문득 사전을 찾아보았다.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음. 또는 관련’이라고 나와 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 살아가는 삶까지 모든 사람들은 셀 수 없는 수많은 관계를 맺어 왔을 것이고 나 또한 마찬가지였지만, 관계를 맺는 것에 자신 있냐고 하면 대답은 ‘아니오’라고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다.

어렸을 때엔 별 문제가 안 되었던 것 같다. 모든 아이들이 으레 그러듯 같이 있으면 친해지고 멀어지면 어느 새 잊어버리는, 그런 단순한 관계가 다였으니까. 첫 트러블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어났다. 4명에서 같이 다니는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나랑 친했던 아이 두 명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난다. 사실 어떤 이유로 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참 ‘왕따’, ‘따돌림’이라는 현상이 사회를 휩쓸었다. 난 그 아이들이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고, 은연중에 스스로가 따돌림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웃긴 건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본능이었던 건지 아님 스스로 그렇게 주입을 한 건지 그렇게 느꼈던 것이다. 스스로를 가련

하고 불쌍하다고 느꼈지 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중학교에 진학했다.

6학년 때의 트러블이 단순히 친한 소그룹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 중학교 1학년 때에는 반 전체에서 벌어졌던 거라 볼 수 있다. 사실 트러블보다는 전학을 갔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 같다. 좀 더 시골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아무래도 폐쇄적인 문화여서 그런지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나는 그 아이들에게 눈에 띄는, 암묵적인 물에서 벗어나는 아이였던 것 같다. 유독 나를 괴롭히고 내가 하는 언행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는 아이가 있었는데, 내가 비록 다혈질적인 성격이긴 해도 동생이나 여자애들을 괴롭히는 남자애들 외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고, 전학을 온 터라 나를 위해 같이 싸워 줄 친구도 없었다. 그 아이가 심하게 창피를 당하고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지면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상황은 없어졌지만,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같은 반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던 게 기억난다. “솔직히 말해 봐. 사실 재가 저렇게 된 게 고소하지?”라고. 사실 저 아이가 저렇게 돼서 잘 났다는 마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아이가 처해진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단지 그뿐이었다.

폭풍 같았던 1학년을 보내고 2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나는 처음으로 전학간 학교에서 나를 베프라는 친구를 만들었다. 그 아이집에 많이 놀러 갔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아이가 같이 노는 그룹의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홍보기 시작했을 때 이 아이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다른 아이들한테 그 친구가 나에 대해 말한 게 없냐고 물어보고 다녔던 것 같다. 물론 깨진 신뢰도가 주된 원인이기도 했지만, 같이 다니는 아이 중 한 명이 자꾸 나의 엉덩이를 세계 치는데 난 그게 엄청 싫었고 그 친구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신뢰도 없고 나를 대한 배려를 할 생각도 없어 보이길래 자연스럽게 그 그룹을 떠나 다른 친구와 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앞의 내용이 하찮게 느껴질, 내 인생에서의 제일 실패한 관계. 바로 가족과의 관계이다. 나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면서 간략하게 썼던 위의 글들은 비록 그 당시에는 나를 힘들고 슬프고 화나게 만들었어도 아주 텅텅하게 써내려갈 수 있었지만, 최근의 관계에 대해서 쓸 때는 아주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나와 평생을 함께한, 어쩌면 나



의 거의 모든 모습을 알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인지 가족들한테도 나의 깊은 속까지 보여준 적은 없지만, 내 안의 내면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겠구나, 온전한 나로써의 모습으로는 관계를 맺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심어진 계기가 되었다.

돌이켜 보면 관계에서 보이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었던 것 같다. 서로를 이어주는 그 끈이 불안해 보여서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항상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나를 놀러가면서까지 나를 바꾸려고 했다.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나는 괜찮은 척을 했고,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 결국은 그게 터졌던 것 같다. 처음에는 모든 잘못된 관계가 내가 정말 못난 사람이었던 거라면, 이 결과가 당연한 것이면 어찌지 싶은 마음에 마음공부와 관련된 서적들을 읽거나 강연들을 들었지만 변해가는 내면과는 달리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좋아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나를 위로하는 한 마디 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관계든 분명 서로에게 도움과 위안이 되었던 적도 있겠지만 끝이 있으며 그때는 서로 놓아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나는 이게 바로 내 가족과 나의 관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분명 그 속에서는 사랑도 있었고 신뢰도 있었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 비록 지금은 파도가 활궤어 쓸어간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말이다. 그래서 나는 서로를 위해 그 관계를 마음 속에서 놓아 주기로 했다.

사실 아직도 내가 한 결정이 잘한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 매일매일 고민하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나는 관계에서 자유롭게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적어도 지금은 말이다.

## 영화관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눈치보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생겼다.

나다음은 긍정, 부정과 같은 가치를 은연중에 담은 수식어가 아니기 때문에.

### 류동현

그룹사운드 잔나비.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아니지만 언제나 좋은 음악과 좋은 목소리를 들려주는 가수. 첫 공연 30명 관람객으로 시작해 올림픽공원 전 좌석 매진을 이룬 가수. 새롭고 좋은 곡을 듣고 싶을 때 고르면 실패하지 않는 가수. 믿고 듣는 가수. 잔나비는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난 콘서트 영상을 담아 편집한 104분짜리 영화를 개봉했고, 여자친구는 예매한 표를 내게 보여줬다. 콘서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생생한 실황 영상과 영등포 타임스퀘어 상영관의 거대한 스크린, 그리고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가수의 무대인사까지. 음악과 데이트, 영화와 연예인 중 싫어하는 것 하나 없는 내가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예매한 날짜가 되었고, 타임스퀘어에 도착한 우리는 생각보다 더 넓은 쇼핑몰의 크기에 감탄하길 잠시, 그 넓은 공간에서 길을 헤메다 영화관을 겨우 찾아 상영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었다. 영상은 대단했다. 아니 잔나비가 대단했다. 편한 자리에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즐겨야 하기에 과연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콘서트 영상에 지루함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 잔나비의 무대 컨셉과 음악은 마치 경극처럼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순식간에 변했다. 내가 알던 평소의 모습처럼 잔잔하고 감미로움을 노래하는 가수에서 갑자기 락스타로 변해 강렬한 퍼포먼스를

# 인도, 82번지

자유가 허용되는 대신 나는 국제 학교 학생으로서 저야 하는 책임이 분명히 있었고, 남들보다 훨씬 뒤쳐진 상태이니 더더욱 노력해야 했다. 그것을 깨닫고 난 후부터 공부하며 고민하기 시작했다.

## 쿠초냥

한국에서의 나는 참 수동적인 사람이었다. 다들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더욱 심했다. 의견 말하는 것을 정말 힘들어했고, 깊은 생각과 고민 없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았었다. 어릴 때 부모님한테 과학이 재밌다고 해서 과학 학원에 보내지고, 영재반에 들어가고, 경시대회에서 상도 받고, 과학고를 목표로 하는 평범한 애였다. 그렇게 과학자가 될 줄 알았고, 과학에 열정이 있다기보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친구도 넓게 사귀고 여러 사람에게 말을 걸기보단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든 친구들과 같이 지내고 하는 편이라 당연히 곁에 있는 아이들과 쪽 친하게 지냈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내 삶은 변화가 크지 않았고 안정적이었지만, 15살 무렵, 아버지의 주재원 발령과 함께 우리 가족은 모두 인도로 이민해야 했다. 갑작스러운 인도행이 너무 두려웠다. 친구들과도 떨어지고, 가고 싶었던 과학고도 뒤로한 채 낯선 곳으로 혼자 떨어질 생각을 하니 너무 무서워서 매일 울었었다.

인도에 간 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나는 완전한 바닥이었다. 영어가 부족해서 수업을 따라가긴 힘들고 한국과 전혀 다른 커리큘럼과 수업들, 성격도 외모도 취향도 전혀 다

선보이고, 뮤지컬 배우처럼 노래 가사에 맞춰 연기를 하다가도 어느샌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어 웅장한 음악을 이끌어갔다. 락스타, 발라더, 뮤지컬 배우, 합창단, 지휘자, 서커스단, 그리고 탐험가까지. 이후로도 전혀 달라 보이는 가면을 수없이 바꿔 썼지만 그 속엔 모두 잔나비가 있었다.

‘잔나비다움’이었다. 그들이 아니라면 누구도 따라하지 못할 무대를 보여주었다. 노래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표현해도 특유의 잔나비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어떻게 매번 곡 해석을 저렇게 자신들에 맞게 잘 해낼까 감탄하고 있는 나에게, 여자친구는 이들이 모든 곡을 스스로 작사 작곡한다는 말을 해주었다. 어리석은 감탄이었다. 자신들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담아 만든 스스로의 노래에 별다른 해석이 필요할 리가 없었다. 그들의 노래는 어떤 가면을 씌우고 어떻게 부르든 그들의 것이었고, 가장 잔나비스러운 퍼포먼스가 되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었다.

데이트 삼아 보러 간 영화관에서 ‘나다움’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생길 줄이야. 이전까지는 나다운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그 끝이 활발한, 단순한, 게으른, 즉흥적인 따위와 같이 바깥에서 온, 이런 표현들이곤 했다. 그리고 그런 각각의 수식어들은 알게 모르게 긍정이나 부정의 가치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잔나비의 나다움은 그들 안에서 나왔다. 그들이 직접 만든 노래였고, 무대였다. 생각해보면 누군가 잔나비를 물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노래를 들려주지 밝은, 참신한, 음색이 좋은, 레트로한 등과 같은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쉽게 평가되는 간단한 수식어로 그들다움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

지금의 내가 잔나비처럼 나다움을 어떤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가질 태도는 조금 달라졌다. 무언가 행동할 때 이게 정말 나다운 것인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눈치보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생겼다. 나다움은 긍정, 부정과 같은 가치를 은연중에 담은 수식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해서 나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가면을 씌우고 어떻게 불러도 잔나비의 노래는 잔나비의 노래이기 때문에.

른 친구들, 아직은 이해하고 어울리기 쉽지 않은 친구들의 세계, 여기서 혼자만 색이 다른 이방인인 거 같고 뒤처진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처음 편입했던 8학년 때는 매일 학교가 가기 싫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항상 모두의 앞에서 의견을 말하라고 하고 떨어지지 않는 입에서 바보 같은 생각을 내뱉을까 무서웠다. 하기도 싫은 체육을 해야 하고 인종차별은 분명히 있었고 나중엔 그냥 별거 아닌 일에도 재는 나를 비웃는 건가 하고 피해의식을 느꼈다.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잠깐 갔을 때 여기서 나가기가 싫어서 그 자리에서 쭈그리고 있을 때도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소리 죽여 울었다. 해석하기도 힘든 과제를 새벽까지 붙잡았지만, 그럼에도 받아본 점수가 처참해서 또 절망했다. 한국에서의 내 모습과는 너무 달라 절망하고 또 절망했다. 우울감에 매일 방문을 닫고 지내는 나 때문에 부모님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변하기 시작한 건 나의 위치를 깨닫고 나서부터다. 인도에 갔을 때 사실 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였다. 쉬는 시간마다 날 찾아오는 친구도, 항상 잘 나오던 과학 점수도 날서포트 해주던 선생님들도 없었다. 그걸 깨닫기까지 꽤 오래 걸렸다. 인도에서의 나는 한국에서의 나와 다른데, 나는 아직도 스스로를 한국에서의 나로만 생각하고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다. 인정할 수 없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작아진 것을. 그래서 성적을 받을 때마다, 발표를 할 때마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 상처를 받았었다.

한 달 반 동안 학교를 다니고 비자 때문에 잠시 귀국했다. 해방된 기분이 너무 즐거웠다. 그때 정말 막 살았던 기억이 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화장도 하고 머리색도 한 달 간격으로 바꾸고, 그동안 한국 학생으로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했다. 마냥 즐거웠다. 그리고 질릴 만큼 일탈을 한 후 깨달았다.

나는 이제 한국학교에 다니는 내가 아니라 국제학교 학생이구나. 이런 자유가 허용되는 대신 나는 국제 학교 학생으로서 져야 하는 책임이 분명히 있었고, 남들보다 훨씬 뒤처진 상태이니 더더욱 노력해야 했다. 그것을 깨닫고 난 후부터 공부하며 고민하기 시작했다. 난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공부뿐만 아니라 고민할 거리는 참 많았다. 친구, 태도, 진로, 선택 등등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방향이 너무 많았고 나는 그때 아예 0의 상태, 출발점에 있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인도를 갔다. 무시당해도 인사를 했고, 두려워도 의견을 냈

고, 조금 바보 같아 보여도 입을 닫고 아는 척하기보단 자꾸 질문했다. 힘든 게 있냐고 물어보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충 끄덕이며 넘어가기보단 힘들다고 얘기했고, 선생님은 내게 도우미 학생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그 친구랑 친해져서 다른 친구들이랑도 조금씩 친해졌다. 물론 이 과정이 항상 수월하지만은 않았다. 그래도 가만히 웅크리고 있기보단 나는 계속 부딪히기로 결정한 거고, 부딪혀서 상처만 받고 돌아온 적도 많지만, 어쩌다 한 번 일이 잘 풀리면 그날 하루 나의 기분은 너무나 좋았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배운 것은 현재의 나를 인정하는 태도와 도전하는 자세이다. 나는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뀔 수 있다.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다. 예전엔 내가 이만큼 잘났었는데,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런데 현 상황을 수용을 해야 나아갈 길이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혹시 모르지, 이렇게 길을 터놓으면 그때부터 내가 원래 가진 기량을 이용해 문제없이 전진할 수도. 간단하게 몇 줄짜리 글로 썼지만 이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았고, 받아들인 뒤부터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인도에 처음 왔을 때를 회상했다. 일단 EAL(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해 영어가 능통해질 때까지 배우는 수업)을 벗어나고 싶었다. 나도 EAL 학생이란 낙인이 찍힌 애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처럼 그냥 학생이고 싶었다. 새로운 수업 시작할 때마다 EAL 학생 손들어보라고 할 때 손들기 싫었다. 남들은 두꺼운 소설을 읽을 때, 교실 뒤편에서 혼자 동화를 읽기 싫었다. 자유롭게 다 배우고 싶었다. 그래서 첫째 목표, EAL을 나갈 만큼 영어를 잘하고 싶었다.

8학년 때 유학을 오자마자 음악 공연에 투입되었다. 발음도 못하는 언어로 힘겹게 합창단 무대를 하고 내려온 후, 다른 사람들의 무대를 보았다. 인상 깊게 보았던 건 재즈밴드 무대였는데,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자신 있게 클라리넷 솔로를 하는 동양인 선배가 멋있어 보였다. 부러웠다. 부러움을 넘어 동경했다. 혼자 어두운 무대 뒤편에서 빛나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기분이 묘했다. 나도 빛나고 싶었다. 이게 두번째 목표이다.

첫 학기를 마친 후, 바로 영어학원과 클라리넷 학원을 등록했다.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노력했다. 기초를 어느 정도 댄 상태에서 인도에 갔다. 원래 소속된 합창단에서 나가고, 밴드 선생님을 찾아가 서툰 영어로 밴드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첫 포지션은 clarinet 3



이었다. 악보도 못 읽고 박자도 못 맞추고 아주 엉망이었다. 그래서 맨날 연습실에 틀어박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새벽부터 방과 후까지, 나는 내 도전을 위해 쉴 틈 없이 노력했다. 나는 항상 가장 늦은 스쿨버스를 타고 집에 왔고, 집에 와서까지 영어 과외를 받고 학교 공부를 했다. 바쁜 일상이지만 도전을 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즐거웠다.

1년 반 동안 악을 쓰며 공부한 덕인가, 10학년 초반에 EAL을 졸업하였다. 드디어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다. 오래 봐왔던, 나의 엄마 같은 EAL 선생님과 이별이라니 가슴이 조금 먹먹했지만, 어쨌든 첫 목표를 이루었다. EAL 탈출. 클라리넷에 매일 악을 쓰며 연습한 덕에 second clarinet이 되었다. 2년동안 연주한 클라리넷에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겨 재즈밴드 선생님을 찾아가 연주를 했고 결과는 합격이었다.

도전하는 자세와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 나의 두번째 배움이다. 나는 정말 다양한 도전을 했었고, 후회 없을 만큼 노력했다.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일인지? 분명 힘들고 피곤하고, 실력이 부족해 창피를 당한 일도 많았지만 정말 즐거웠다. 누군가 세워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그리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설렘다. 성과는 내가 의도한 방향으로 온 것도 있고, 아닌 때도 있어 때론 실망하기도 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다른 성과를 불러오는 것을 보고 어떤 쪽으로든 노력과 결과는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를 몇 년째 다니며 내가 학교에 익숙해졌을 때쯤, 우리 학년으로 한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다. 그런데 적응을 못하고 걷도는 모습이 꼭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자꾸만 마음이 쓰였다. 무엇보다 한국인 무리가 만들어지자, 대놓고 인종차별을 하는 아이들도 생겨서 화가 났다. 도움이 되고자 점심시간, 방과 후를 할애해 새로 온 한국인 대상으로 수업 내용을 한국어로 풀어서 알려줬다. 같은 조가 되면 자꾸 말을 시켜서 한마디라도 하게 했다.

멘토링만으로는 부족해서 한국에 대해 좋은 인식을 심을 방법을 고민했다. Festival of Nation이라고 국제 학교에서 1년에 한번 하는 문화 축제가 있다. 연말에 있는 행사이지만, 연초부터 팀을 꾸려 기획을 시작했다. 나는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K-pop 공연을 준비했다. 태어나서 처음 리더를 해봤기에, 과정이 쉽지 않았다. 의견 충돌도 많았고

다들 내 마음만큼 따라 주지 않아 답답했다. 그래도 우리의 문화를 보여주고 알리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결과는 매우 좋았다. 공연은 반응이 정말 좋았고, 공연에 쓰인 k-pop 곡은 몇 년 동안 친구들의 파티 음악에 쓰일 정도로 유명해졌다. 심지어는 한국인 차별을 하는 그 친구들까지 즐길 정도로. 이후 적어도 헛소리하는 더 이상 안 나오는 것과 새로 온 한국인들이 잘 적응해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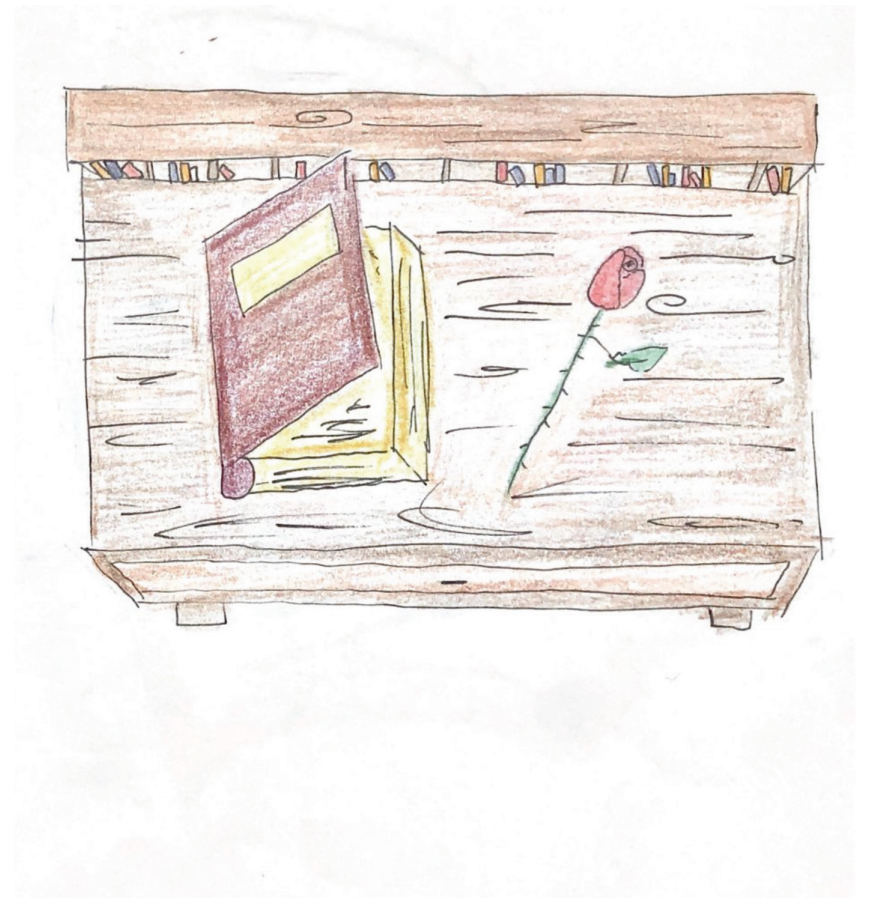
어느덧 국제학교를 다니지 4년째, 아버지의 귀국과 함께 나의 유학생생활은 마무리되었다. 이별은 항상 아쉬운 마음이다. 친구들과 마지막인 것, 이 장소에 다신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나는 이곳에서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기에 웃으며 마무리하였다. 처음으로 나를 인정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도전을 했고, 죽기 살기로 노력했고, 성취하고, 더 나아가 외부의 것을 바꾸고자 도전을 하기까지 했다. 물론 나라는 사람은 변하진 않았지만, 태도와 마음가짐은 완전히 변화했다. 선생님께서, 부모님께서 손잡아 주지 않으면 견지 못하는 나는 스스로를 믿으며 혼자 걸어가기 시작했다. 인도에서 겪은 변화는 현재의 내가 되기까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시기 중 하나라 아무리 어둡고 힘들었어도 내겐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경험이다.

아직도 난 내가 무너지려 할 때마다 이때 기억을 회상한다. 내가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상기시키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하루하루 지낸다.

# 장미가 자라는 소년

도도도도

장미는 아름답지만  
나에게는 아니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장미가  
자라나는 소년.





언제부터인가 나의 사랑스러운  
장미는 나를 가두고 음아매었다.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자기들에게서 철저히 분리시켰다.



나는 화가 났고  
눈물이 났고  
상처가 났다 ...



그러나 그럼에도,  
내게 남은 것은  
나의 사랑스러운 장미.  
모두가 너와 나를 마워하고 배신해도  
나는 카마 그럴 수 없었다.  
어차피 너는 내 눈에 또 밝힐테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울기 싫고  
화를 내지도 않고  
고개 숙아지도 않겠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 바다 너머 혼자

이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숫자, 그 속에 담긴 과정과 의미가 중요하니까.

## 웬

나는 어느 고3과 다를 것 없이 밤 늦게까지 독서실에서 수능특강을 풀었고 추운 계절이 되어 친구들과 수능을 봤다. 어른들은 마치 좋은 대학에 가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셨기에 십 대의 내 꿈은 오로지 대학, 대학이었다. 다음 해 3월 수도권 대학 1학년으로 입학했고, 받은 점수에 맞춰 중어중문학과에 갔다. 하지만 대학을 다니면서도 풀리지 않는 의문만 늘어만 갔다. 대학교에 좋은 친구들은 있었지만 웬지 어울리지 못하고 곁돌기 시작했고 학교 수업은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내가 인서울 대학 간판 때문에 미련이 남아서 이럴까 싶어서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반수를 했지만, 결과는 1년 전과 똑 같았고 돌아오는 현실은 너무 아팠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복학, 공무원 준비, 삼수... 내가 생각해 낸 선택지는 이 정도가 다였다. 어떤 선택지도 고르고 싶지 않았지만 실패의 반복이 두려워 복학을 결정했다.

그렇게 개강을 기다리며 학비를 내려던 날, 대만에서 유학 중에 잠시 한국에 들른 친구가 만나자고 했다. 그 친구는 종종 대만에 한국인 친구가 없다며 내가 중국어를 배웠으니 대만에 오라고 말했었다. 카페에 앉아 한창 수다를 떨고 있는데 ‘대만 친구들이 말을 너무 빨리 한다’, ‘학교 수업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등등 불평하는 친구를 보며 문

득 유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유학의 힘든 점들만 나열하는 중인데, 이상하게 그마저 궁금하고 낭만적으로 다가왔다. 그 동안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유학이 지금 놓쳐선 안 될 기회로 다가왔다. 하지만 유학을 떠나면 부모님도, 고향도, 엄마 집 밥도 없다. 큰 결심을 해야만 했다. 나의 선택을 믿고, 후회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각오를 하고 나는 처음으로 혼자 비행기를 타고 유학길에 나섰다. 이게 내 20대의 가장 큰 첫 도전이고, 그 당시 내 나이 스물 한 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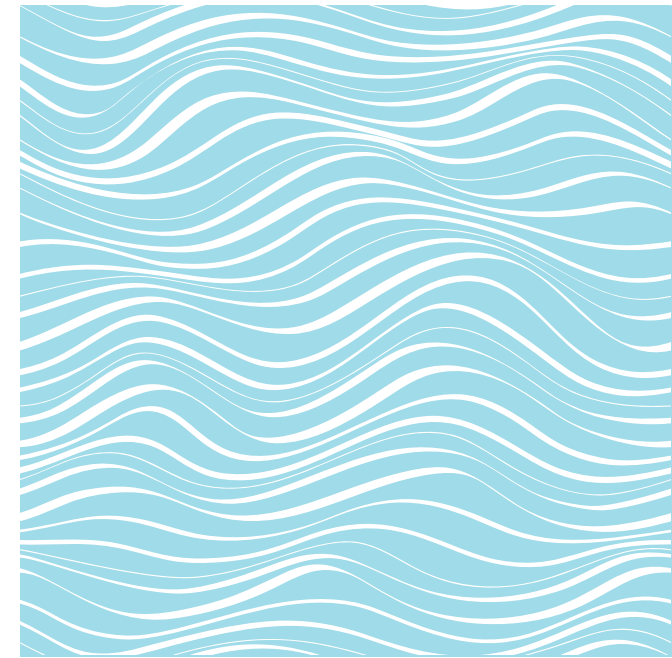
5월의 대만은 이미 한여름이다. 공항 밖에 나서는 순간 후끈 느껴지는 열기에 잠시 아찔했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거리를 나서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중국어, 한자로 가득 찬 간판들 사이를 지나가다 보니 대만에 왔다는 게 조금씩 실감났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룸메이트가 될 친구의 집에 도착한 뒤 짐을 풀고 자려고 누웠는데, 중학교 때 수련회 밤은 항상 뒤척이며 밤을 새울 정도로 가족과 떨어진 낯선 곳에 적응이 느린 성격이라 걱정 속에 밤을 몇 번 더 세웠다.

처음 대만 편의점을 갔을 때의 일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20년 인생 살면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에 또 한 번 아찔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달걀을 간장, 참깨 등과 함께 삶은 짭짤한 ‘차예단’ 냄새였다. 그 옆에는 어묵도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었다. 한국과 다른 풍경에 놀라워하며 주먹밥을 들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편의점 직원이 내게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계산하라는 소리인 줄 알고 돈을 내도, 내 돈을 받지 않고 중국어로 계속 내게 묻는 것이다. 나는 포인트 적립하라는 소리인가 하고 일단 중국어로 아니라고 말했다. 그 말의 의미가 ‘데워드릴까요?’ 라는 뜻이라는 걸 한 달 후 중국어 수업 시간에 알게 됐을 때, 마음속으로 이젠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에 부뚫했다.

대만에 처음 도착해서 중국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 어학당을 1년 다녔는데, 첫 수업부터 번체자로 가득한 책과 일주일에 두 번 시험이 있는 수업이 따라가기가 버거워 눈물을 머금고 악착같이 공부를 했다. 그 덕에 나중에는 반에서 레벨테스트 1등도 하고, 대학 합격 통지서도 받았다. 어학당 학생들은 미국, 인도, 태국, 독일 등 온통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고 한국인과 같은 반이 된 적은 4학기 중 딱 1학기뿐이었다. 외국인들과 어설픈 중국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카페에 가서 공부도 하고, 시험이 끝나면 같이 야시장에 가거나 러차오(실내포차)에 가서 타이완맥주를 마시며 안주를 뜯곤 했다. 대학에

입학한 다음엔 시험이 끝난 날이나 공휴일에는 기차나 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다녔다. 그리고 여행을 다니며 찍은 영상을 유튜브에 남기기 시작했다. 아직은 영상 조회수가 내 키 수준에 그치지만, 다양한 도전들을 하는 것에 의의를 두며 다음 도전으로 대만 회사 인턴을 준비하고 있다.

대만이라는 나라는 고작 시차 1시간, 비행기로도 2시간 40분이면 도착하는 곳일 뿐인데, 그때의 난 왜 대만이 그렇게나 멀게도 느껴졌을까? 언어의 장벽만 극복한다면 유학은 정말 별거 아니었다. 이 곳에서 보내는 매 순간들이 자유롭고 새로웠다. 유학이라는 도전을 망설였던 이유 중 하나는 뒤쳐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내가 입학할 때 다른 친구들은 졸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숫자, 그 속에 담긴 과정과 의미가 중요하니까. 여러 번의 방황 속에서 일궈낸 한 번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새로운 일을 멈추지 않고 벌일 예정이다.



# 03

## 바 라 | 보 다

Three things are good in small doses and bad in big ones: yeast, salt, and hesitation.

### Jewish Proverb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그것은 빵의 이스트, 소금, 망설임이다.

유대 격언

## 행복 대신 즐거움

달리기 실력이 아직 녹슬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느낀 뿌듯함처럼,  
그렇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즐거움을 일상에 더하고 싶다.

### 하루

이번 학기, 학교에서 교양 수업으로 윤리학 강의를 듣고 있다. 요즘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덕에 따라 탁월하게 발휘되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하였다. 즉, 행복이란 각자 되고자 하는 궁극적 삶이 실현되고 충족될 때 오는 즐거움이며, 추구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 가장 행복한 경험이라고 하였다. 인간 본성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라면, 결국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다.

코로나 19 이전의 나는 코인 노래방에 가는 것이 취미였다. 학창 시절 시험이 끝나면 친구들과 무조건 코인 노래방으로 달려가 노래를 부르고 춤추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렸다. 그렇게 행복을 얻었지만 코인 노래방가기라는 소소한 행복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 뜻하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하루하루의 '소확행'은 내게 중요하다. 고민도 많고 해야 할 일들도 많은 삶 한가운데에서 일상 속에서의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쉽게 번아웃이 오곤 했다.

행복했던 순간과 그 행복은 어떻게 해서 얻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최근에 받은 적이 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동창을 만나 노을과 강물에 반짝이는 윤슬을 봤을 때 행복했다. 노을 보고 있으면 '행복하다. 노을을 계속 보고 싶는데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느꼈고, 친구들과 놀면서 찍은 사진 속의 내가 활짝 웃고 있는 것을 보

면서 그 당시의 행복했던 감정이 떠올랐다. 그 밖에도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두고 선물로 받은 유화 색칠하기를 했던 순간과 여행을 갔을 때에도 행복했다. 생각해 보면 모두 외부에서 타인과 함께하거나 무언가를 했을 때 얻은 행복이었다.

행복의 근원이 외부이다 보니, 꼭 무언가를 하고 타인과 만나야만 행복하다는 감정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의 나는 행복하지 않나 싶었다. 2020년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되던 그 때, 나는 행복하다는 감정을 어디에서 얻는지 몰라서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무기력해졌고, 그러한 무기력함은 우울함으로 이어졌다. 노래를 들으며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잠시뿐이었다. 행복의 중심을 외부가 아닌 나에게 맞추고 나로부터 행복함이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게 다가왔다.

외부로부터의 행복은 어느 순간이 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복의 중심을 나로 해야겠다는 것만 깨달은 상태이다. 행복의 중심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고 복잡한 것 같다. 그래서 행복의 중심을 찾는 동시에, '행복'이라는 감정보다 '즐거움'이라는 순간이 인식하기 더 쉽고 자주 다가오므로 순간순간의 '즐거움'을 더 즐겨보려고 한다. 전 정류장에서 출발한 버스를 빠르게 달려가서 탔을 때, 달리기 실력이 아직 녹슬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느낀 뿌듯함처럼, 땅만 보고 길을 걷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본 푸른 하늘의 시원함처럼, 그렇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즐거움을 일상에 더하고 싶다

좋아하는 웹툰에서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일기장에 적어두었는데, 그 구절을 가져오며 이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행복은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은 거라고. 아이스크림은 입을 즐겁게 하지만 반드시 녹는다. 우리는 내 손안의 아이스크림은 녹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거창한 것들을 좇는다. 하지만 행복공화국에는 냉장고라는 것이 없다. 남은 옵션은 하나다. 모든 것은 녹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주, 여러 번- 아이스크림을 맛보면 된다고.”

- 네이버 웹툰 <아홉수 우리들> -

## 엄마의 메세지

서툴게 입력해 낸 엄마의 카톡이 바로 내가 쓰고 싶던 좋은 글이었다.  
결국 부지런한 사랑이 부지런한 글쓰기다. 부지런한 사랑이 좋은 글을 만든다.

류동현

나는 글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카피라이터가 간절히 되고 싶었고, 그래서 글을 잘 쓰고 싶었다. 내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고 말하면 상대방은 내가 당연히 글을 잘 쓰겠거니 생각하지만 학창시절부터 취준생 때까지 써 왔던 글들은 대부분 18세기 문학사조에 관한 보고서, 높이법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담은 논문 따위의 딱딱한 서술문이었다. 그런 나에게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는 글을 쓰는 재주가 갑자기 생겨날 리 없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기 시작했다. 글쓰기에 왕도가 없다는 걸 알지만 더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력을 키우고 싶었다.

그러던 중 내 마음을 사로잡은 건 이슬아 작가의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강의 영상이었다. 기억을 되짚어 보자면, 이슬아 작가는 글쓰기와 사랑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며, '나'를 주어로 삼는 이야기는 결국 바닥나게 된다 말했다. 그래서 글쓰기는 타인의 시선 이동과 그들의 여러 모습을 헤아리는 관찰이 필요하고,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심히 지나치는 것들을 다시 보고, 일상의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의 여러 모습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부지런한 사람이 부지런히 글을 쓸 수 있는 것이다



# 다시 찾는 나만의 길

내 모습을 바라봐도,  
안 바라봐도 다 내 선택이다

김용휘

자랑이라면 자랑일까? 고등학생, 아니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줄곧 잘 했다.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중국어 공부, 시험 공부, 여러 활동들은 성과가 바로 나와 재밌었다. 대학이라는 곳을 향해 뻗어 있는 이 길들을 달리는 게 정말 즐거웠다. 수능 공부는 나의 모든 것을 짜내어 공부하게 하는 즐거운 과정이었다. 열심히 했기에 좋은 결과가 따라왔다. 내 기준에 노력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학 진학 후 조금씩 노력의 방향을 못 찾기 시작했다. 남이 정해준 방향으로만 쏟아 부은 나의 열정은 내게 교과과정 상에서는 후하게 보상했지만 난이도가 높아진 학과 공부, 갑작스럽게 주어진 자율성 거기에 다양한 유혹거리들 사이에서 정답이라 여겼던 길은 험난해졌고, 그와 반대로 다양하고 재밌어 보이는 길들이 많이 펼쳐졌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항상 내가 갈 길을 정해주셨던 엄마에게 여쭙 보아도 이제는 나의 길을 알아서 가라고 하셨다. 뭐지, 당신께서 가라 하신 길인데,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가야 한다니. 참으로 당황스러웠다. 용기를 내서 여러 길을 짚짚 걸어봤지만, 그 끝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멈췄다.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나는 영상을 보고 '아, 이거다' 싶어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 일상에서 떠오르는 특별한 생각과 감정의 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유심히 관찰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열정이 과다했던 것 같지만, 당시에는 비 냄새나, 소변기에 붙어있는 스티커 등을 보면서도 생각에 잠겨 이에 관한 글을 써 보려고 시도했다. 일상의 어떤 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주변에 열중하는 와중 우리 가족 그룹 채팅방에 엄마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올라왔다.

'나 좀 섭섭한 얘기 할게. 나는 여러분들 안테 밥 먹었냐고 매일 물어보는데 나한테는 아무도 안 물어보네~ 아는 오늘 하루 넘 힘들고 괴로웠는데 아무도 내 곁에 없네.'

부끄러웠다. 뒤통수가 뜨거워지고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다. 내가 놓치지 않으려 한 것은 무엇일까 싶었다. 일상의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잡아내려 했으면서, 이른 아침부터 내뿜던 엄마의 작지 않은 한숨과 표정을 읽지 못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루 종일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다행히 그날 나는 엄마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 글쓰기를 위한 나의 과한 열정도 식힐 수 있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천천히 시작해야지 마음먹게 되었고, 근처의 소중한 존재부터 관심을 가지겠다고 작게 다짐했다.

오타투성이에 띄어쓰기는 안중에도 없는 서툰 엄마의 메시지는 다른 어떤 문장가들이 쓴 글보다 크게 나의 마음을 움직였고, 나에게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다. 서툴게 입력해 낸 엄마의 카톡이 바로 내가 쓰고 싶던 좋은 글이었다. 결국 부지런한 사랑이 부지런한 글쓰기다. 부지런한 사랑이 좋은 글을 만든다.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나는 카피라이터가 되어 광고에 들어가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다. 취준생 시절, 사람들이 내가 만든 광고를 말하면 '아, 그 광고!'라고 외치며 신기해 하는 광고를 만드는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었던 나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회사 사람들이 '카피님'이라고 불러주는 위치에 있다. 하루빨리 카피라이터로서 인정받겠다는 목표가 있지만, 의욕만 앞서 1년 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 목표만 보고 혼자 달려가기엔, 나에게서는 같이 걸어가야 할 다른 소중한 것들이 너무도 많으니까.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 남들이 다 돈이 있어야 된다 하니 일단 돈을 벌 수 있는 길로 가기로 했다. 겨우겨우 졸업하고 취업에까지 성공하며 한시름을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학교와 직장은 너무 달랐다.

그저 돈만 바라보고 온 직장에서 나는 수동적으로 변했다.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게 즐겁고, 모든 것을 짜내어 몰아붙여 쾌감을 느끼던 내가 조심스러워지고, 돈이 될지 안 될지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다. 머리가 아프고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다. 소극적인 모습에 사람들도 다가오지 않았고, 지금 생각하면 또 다른 재미이고, 즐거움을 일 수 있던 것을 놓쳤다.

내가 서 있는 이 길을 바라보려 하니 괴롭고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바라보기 싫었다.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인가? 내가 달려온 길의 끝이 돈 말고는 재밌는 게 없어 계산기만 두드리는 삶인가? 돈이고 나발이고 그냥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렇게 잠깐의 흥역을 앓고 꾸역꾸역 다니던 회사도, 시작했던 자취도 그만둔 채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잤다. 그냥 잠깐 잔다 생각했는데, 마치 겨울잠을 자는 곰돌이처럼 긴 잠을 잤다. 목표 없이 그냥 잤다. 자는데 무슨 목표가 필요할까? 어쩌면 이 현실이 싫어서 더 깊게 잠든 것 같다. 잠을 자면 나가서 현실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 좋았다. 아마 곰돌이도 겨울이 너무 추운 걸 잊기 위해 따뜻한 땅에서 잠만 잔 게 아닐까?

반 년 동안 잠만 자니 등이 굳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부모님께서도 걱정하셨지만 나 스스로도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잠만 잘 수 있을까? 곰돌이도 봄에는 침대에서 나오는데, 나도 슬슬 일어나야 하지 않나? 부모님은 비싸더라도 상담치료를 받아보자 하였다. 나도 걱정이 되어 그리 하기로 했다.

선생님을 만나고 여러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무슨 대화를 나눈 건지 기억이 또렷이 나지는 않지만, 나의 과거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 대화를 했고, 선생님만의 시각으로 해석해서 나에게 말해주는 그런 상담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인상깊었던 부분은 이렇게 상담을 받다보면 내 머리 속에 선생님 역할을 하는 세포가 생겨, 나중에 어떤 경험을 해도 선생님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하셨다. 정확히 말하면 조금은 효과가 있었다. 상담비가 너무 비싸 무료로 제공하는 상담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덜 후회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예전에는 해 보지 않았을 것들을 많이 시도해 보기

시작했다. 시즌 세일 옷만 사던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정가에 사고, 비싼 마인드 강의도 신청했다. 처음에는 사치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를 소중히 대접한다는 기분이 들었다.

마인드셋 강의를 들으며 나를 많이 돌아봤다. 모르거나 지면 창피하다는 자존심이 강한 내 모습,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괴로워 항상 피했던 내 모습, 수업 중 참 많이도 혼났다. 수업 중 배워서 안 하기로 한 행동들을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마치 실수를 한 번 해서 인정했는데, 또 같은 실수를 하는 기분? 맞다. 사실 하던 대로 하는 게, 살던 대로 사는 게 정말 편하다. 고치기로 약속했는데도 너무 고치는 게 싫었다.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고치는 게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곳에서 에너지를 안 쓰다니... 이렇게 나에게 변화를 줄 수 있을 때 달리는 것을 좋아하던 나 아니었나? 난 나의 성장을 위해서 과감한 도전을 하는 아이였는데, 왜 내 모습을 바라보고 느끼고 성장하는 것을 멈췄지? 너무 고통스럽나? 고통을 느끼는 것도 도전의 일부가 아니었나?

이 또한 내가 정하는 거다. 그래. 어렸을 때도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즐거워서 내가 한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 즐거워서 내가 한 선택이었다. 내 모습을 바라봐도 안 바라봐도 다 내 선택이다. 꼭 그렇게 해야만 했던 정답은 없었다. 내가 고통을 느끼면서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라봐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우선은 그렇게 마무리하려 한다. 내가 내 목표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았다는 것도 감사하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내가 선택하고 싶을 때 선택하자. 그 정도 선택권은 있잖아? 그리고 사실 내 안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외치는 걸 알고 있지 않나. 눈물날 것 같은 그런 날, 날 잡고 혼자 천천히 바라봐야만 제대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바라보고 나면 길이 보이겠지? 그럼, 그 때 다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달려 보자.

# 숨, 삶, 그리고 나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가 갑자기 죽음이 닥쳐와 모든 걸 앗아간다면,  
지난 날들을 되살리며 삶을 추억할까, 아니면 후회할까?

웬

2020년 12월 31일, 친구와 새해 카운트다운을 하러 기차를 타고 바다에 갔다. 밤 12시가 되자 형형색색의 불꽃이 올라와 팡 터지기 시작하며 2021년 새해를 알렸다.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근거리고 신이 났다.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또한 우리들처럼 불꽃을 올려다보며 저마다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순간 아무런 걱정들도 생각나지 않았고 행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될 것 같았다.

그 해 여름방학이 되자 오랜만에 한국에 와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 생각보다 아프지 않아 약을 먹지 않고 버텼는데, 이틀 후 두통은 나았고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갔지만 팔저림 현상과 호흡 곤란이 찾아왔다. 갑자기 가슴 한 쪽이 아프고 숨이 가빠졌다. 뉴스에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거의 한 달 동안 계속되는 부작용 증세에 불안해진 엄마와 나는 급히 응급실을 찾았다. 심장 쪽 검사를 받은 후 생애 첫 링거를 맞으며 차가운 병실에 1시간 동안 누워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덜컥 겁이 났다. 다행히도 검사 결과는 이상 없음으로 나왔지만, 이번 일을 통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깊이 박혔다.

죽음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 우리의 숨을 너무나 쉽게 끊어버린다. 죽는 것을 피

할 수는 없으니 미련과 후회 없이, 예를 들면 떡볶이집 벽에 있는 '잘 먹고 잘 있다 갑니다' 같은 낙서처럼 덤덤한 태도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가 갑자기 죽음이 닥쳐와 모든 걸 앗아간다면, 당장 이루지 못한 것에 후회로 가득한 채 인생을 마무리할까 두렵다. 그러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죽음도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았고 내 자신에게 만족했다면 죽음이 닥쳐와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니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이 더 소중해진다.

예전에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하거나 차근차근 올라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것만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저마다의 후회가 있을 것이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설령 그 일이 실패하거나 중단될 지라도 손해보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하는 것에 후회와 두려움 속에서 망설이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그때의 차갑고 적막한 병실을 떠올린다.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지난 날들을 되살리며 삶을 추억할까, 아니면 후회할까? 죽기 전에 누구와 함께 어떠한 이야기를 할까? 가능하다면 삶이 끝나기 전에 아름다운 불꽃을 바라보며 행복에 흠뻑 빠졌을 때처럼, 한 치의 미련도 없이 행복을 느끼다 가고 싶다.

# 현재부터 미래까지

자신의 흐름대로 살면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불행하지 않은 미래를 살아가거나 그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삶은 꽤나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세벌

인간의 삶에 온도가 있다면 내 삶의 온도는 대략 30도 정도일 것이다. 사람의 체온보다는 현저히 낮지만 시원하다고 할 수도 없는 미적지근한 온도. 그렇다 해서 불씨를 키울 의지도 없는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이 주제는 삶을 이루는 모든 요소와 관련되어 있고 깊이 파고들어 갈수록 허무주의, 혹은 염세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삶에 가치를 따질 수 있다면 그 척도는 성공과 실패로 나뉘는 것일까? 성공하여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면 의미가 있는 삶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돌아보았을 때 참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의미있는 삶이라고 한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후회가 남는다.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만을 하며 살아가도 그것을 돌아보는 미래에서는 늘 아쉬움이 생기기 마련이다. 나 또한 그리 길지도 않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많은 후회를 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조금 더 노력해 볼걸,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유독 우울한 밤이면 생각나는 것들이 참 많았다. 마음먹고 해내는 일보다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일이 많은 것을 뒤늦게 후회했고, 미

래가 걱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현재를 후회하기도 했다. 그러는 와중에도 끝까지 해낸 일들은 기억에 남아있어서 후회만 가득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훗날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허무함보다 추억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곱씹어보았다.

언젠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후회가 적은 삶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흔히들 말하는 '버킷리스트'를 조금씩 적어가려고 한다. 먼저 이루고자 하는 직업적인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목표 자체는 삶의 의미가 되지는 않았다. 해보고 싶은 일은 한 가지가 아니었고, 경험해보고 싶은 직업 또한 두 가지가 넘었다. 오히려 다행이었다. 목표만을 보고 달리다 그 뒤를 생각하지 않아서 허무해질 일이 없을테니까.

맛있는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국내에 들어오지 않아 현지까지 가서 먹어봐야 하는 음식들의 목록 또한 적어보았다. 당연하게도 이 또한 삶의 의미가 되지는 않았다. 여행이라는 단어는 늘 두근거리지만 미식가를 생업으로 삼을 것은 아니니까. 그 다음으로는 정신적으로 나아갈 목표를 세웠다. 내가 아닌 다른 생명체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어른이 될 것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싶다는 뜻이다. 필요한 순간에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고소공포증을 극복할 패러글라이딩을 리스트에 적어 두었다. 그 외에는 소소하게 외국어 배우기, 취미생활 등이 목록을 차지했다.

맛있는 것을 먹고 버킷리스트를 적어본다 하더라도 그 때의 행복감 너머로는 당장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는 없었다.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날에는 적어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회의감도 들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둘 지워가면 언젠가 후회되는 일보다 뿌듯하게 생각하는 일이 더 많아지겠지. 그때가 되면 삶의 의미를 찾기만 하는 지금과 다르게 짧은 답이라도 내릴 수 있을 것만 같다.

앞으로도 내 삶의 의미는 깊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정의하기엔 살아온 날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지금은 자신의 흐름대로 살면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불행하지 않은 미래를 살아가거나 그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삶은 꽤나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만드는 시간과 과정 속에서 남들은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나는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만드는 시간 동안 매우 행복했다는 사실을.

## 토토마을이장

야, 그럼 너네 집에서 바다 보여?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인천 출신이라 말하면 동기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던 질문이다. 그때마다 나는 항상 바다가 보인다고 거짓말했다. 물론 거짓말하면 표정에 티가 바로 나는 나이기 때문에 5초 정도나 효과가 있는 장난이고 거짓말이었지만.

인천은 인천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매우 넓고, 바다가 보이는 곳이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릴 때 내가 경험한 바다는 대부분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갯벌이었다. 그래서 처음 모래가 있는 바닷가에 갔을 때는 충격이었다. 어릴 때 아빠가 우리나라에는 갯벌만 많고 해수욕장 같은 바다는 외국에 나가야만 볼 수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장난기가 많은 아빠 덕분에 나는 주말 아침마다 정말 많이 속았다. 여러 가지 기억 속에서도 지금도 잊히지 않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이 에피소드를 ‘꿀차 사기 사건’이라고 칭한다. 지금은 누가 그냥 쥐도 안 먹는 꿀차를 어릴 적에는 정말 좋아했다. 아마도 엄마가 텐텐(주석 추가 : 츄잉캔디 형태의 비타민 영양제, 노마골드

로도 잘 알려짐)과 꿀차를 내 손이 닿지 않던 상부장에 넣어 두었기 때문에 더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듯하다. 내 의지로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은 커지기 마련이다. 대학생이 된 뒤, 나는 직접 텐텐 한 통을 구매했다. 어릴 때 그 맛과 똑같았고, 과하게 많이 먹은 탓에 월경불순이 왔다. 나중이야 안 사실인데 텐텐을 많이 먹으면 월경주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뭐든 과하면 좋지 않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다.

꿀차 사기 사건은 내 나이가 한 자릿수였을 때의 일이다. 주말 아침마다 나는 아빠와 종종 놀러 가곤 했었다. 어릴 적 아빠와 주말 아침에 주로 자주 가는 곳은 강화도의 갯벌이었다. 주로 아침 일찍 출발해서 해물칼국수를 먹고 그 에너지는 물이 다 빠진 갯벌에서 고등을 줍는 것에 사용되었다. 간조에서 만조까지 바닷물이 밀려오는 시간은 생각보다 엄청 짧다. 서두르지 않으면 그날 오후는 집에 돌아가 엄마에게 살아달라고 할 고동이 없었다. 집에 도착해서 갯벌에서 고등을 잡았다는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항상 서둘러서 고등을 잡았다.

‘꿀차 사기 사건’이 일어난 그 날 아침은 아빠가 나에게 평소와 다르게 다가왔다. ‘꿀차 먹으러 갈래? 꿀차 사줄게!’라고 말을 건네왔다. 어릴 때도 지금도 나는 잠이 아주 많은 사람이다. 먹는 것보다 잠자는 것을 더 좋아한다. 배고픈 것은 그러려니 할 수 있어도 졸린 건 절대로 못 참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함과 동시에 힘들어한다. 하지만, 꿀차라는 그 두 글자의 단어는 주말 아침 나를 움직이기에 아주 충분히 매력적인 단어였다. 그 당시 나에게 있어서 꿀차의 가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섯 잔에 버금가는 정도의 가치였다. 코코아와 꿀차가 선택지에 있다면 주저 없이 꿀차를 선택했다. 아, 물론 지금은 둘 다 싫다. 무조건 내 선택은 고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아빠는 아마 내가 꿀차라면 금방 움직일 것을 알고 말했을 것이다.

꿀차에 이끌려 아빠가 운전하는 차에 탔고 잠이 들었다. 쪽잠을 자고 일어나서 창밖을 봤을 때, 그 황당한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어느 산 입구였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하지만 버스도 혼자 탑승하지 못했던 어린 나는 아빠 차에서 내리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다. 꿀차를 파는 카페는 없었다. 아빠는 나에게 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꿀차 파는 아저씨가 와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줬다. 이때가 내가 기억하는 제대로

된 인생 첫 등산 경험이다. 정말 힘들어서 짜증난 상태로 산에 올랐다. 중간에 힘들어서 칭얼거리자 아빠가 나를 업어줬던 기억도 있다. 내가 왜 지금 이 아침에 산을 오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머릿속에는 한 가지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꿀차, 꿀차, 그저 꿀차 뿐이었다. 아,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그냥 꿀차 먹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다. 힘들게 산을 오르고 내려오는 길은 생각보다 즐거웠다. 생각보다 꿀차 생각도 많이 나지 않았다. 올라갈 때는 꿀차가 내 전부였는데, 내려올 때는 꿀차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라왔던 길을 따라 반대로 내려오자 아빠 말대로 꿀차 파는 아저씨와 함께 다마스가 도착해 있었다. 산을 오르기 전에는 어차피 내려올 길인데 내가 왜 힘들어서 올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이 컸다. 그때의 나는 그저 꿀차나 먹고 자고 싶었다. 처음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그저 속았다는 생각만 들었다. 하지만, 산에서 내려와야만 느낄 수 있는 꿀차 맛이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다.

요즘 나는 뜨개질에 빠져 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실을 풀기 위한 뜨개질에 빠져있다. 선을 면으로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수고로운 일이다. 실의 굵기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바늘의 호수도 다르고 실의 소재에 따라 같은 패턴으로 뜨개질을 해도 다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지는 작품이지만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을 풀 때 그 기분은 너무 짜릿하다. 일정하게 힘을 주고 뜬 작품은 풀 때 일정한 힘을 주면 끝까지 잘 풀린다. 하지만 중간중간 다른 생각을 하거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할 때 뜬 작품은 푸는 것도 고생스럽다. 풀다가 실이 엉켜 버릴 때도 있다. 목구멍에 큰 알사탕이 막히는 것처럼 중간에 실이 막혀버린다. 실을 풀 때 더 빨리 풀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서 힘을 평소보다 많이 준 적도 있다. 얇은 실로 뜬 작품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조심히 풀지 않으면 이내 끊겨 버리고 만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코바늘로 뜨개 작품을 만든 후 실 정리까지 아주 꼼꼼하게 하고 나서 풀어버린다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반응은 비슷하다. '그걸 왜 풀어?', '혈, 안 아까워?', '잘 만들었는데 그 가방 나 줘!' 대략적으로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다. 다 완성한 작품을 역으로 풀어버리는 이유는 과정을 다시 한번 곱씹고 싶은 내 마음과 욕심과 생각을 덜어냄에 있다.

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마음이 버겁다. 내 물건이라면 그게 뭐라도 애정을 주고 싶어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 물건에는 이름이 있고, 이름이 없는 대상은 주로 '친구'라고 칭한다. 물건의 개수가 많아지면 모든 친구에게 애정을 주기가 힘들어진다. '내 물건'이라고 칭하는 순간 나는 각각의 친구에게 역할을 준다. 하지만 종종 어떤 역할도 맡지 못하는 친구들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나는 '내가 또 욕심을 부렸구나'라고 생각한다. 딱히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깝다는 이유로 갖고 있어야 할 것 같고 결국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그럴 바에는 다시 원래의 모습인 '실' 그 자체로 돌이키는 게 더 행복하다. 재료로 돌이키는 과정에서 나는 안도감 비슷한 것을 느낀다. 그 과정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래서 나는 '작품'에서 다시 '재료'로 돌아간 실을 보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다. 실은 다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 친구가 될 수 있다.

나에게 다 풀고 나서 후회할 때가 없었냐고 누군가 물었던 적이 있다. 후회한 적 있다. 그것도 매우 많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아니었는데, 일주일 후쯤 갑자기 '아, 그때 그거 여기에 사용하면 딱 맞는데!'라고 혼잣말을 한 적도 있다. 하지만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실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저 다시 재료로 작품을 만들고 이름을 붙여주니 후회는 사라졌다.

그다지 먹고 싶지 않은 음식도 갖고 싶지 않았던 물건도 이유 없이 욕심날 때가 있다. 내가 욕심이 생길 때, 내 집착은 점점 더 커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나를 바라보면 현실과 분리된 느낌이 들고 멍해진다. 이 감정은 나에게 큰 불쾌함을 가져다주기에, 이 기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나에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 갖고 싶은 물건이나 먹고 싶은 음식에 집착하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나는 내 자신이 점점 더 좋아진다. '꿀차 사기 사건'이 일어난 날도 사실 아침을 챙겨먹었기 때문에, 꿀차는 단지 욕심나는 음식이었고 그 칼로리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열심히 뜨개질을 해 오랜 시간 만든 작품도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히 풀어버릴 수 있다. 만드는 시간과 과정 속에서 남들은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나는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만드는 시간 동안 매우 행복했다는 사실은.

살다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나지 않는 일이 많지만, 그 결론도 그대로 괜찮다. 오



히려 시간이 지나서 바라보면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내가 원하는 결론을 맺기 위해 나는 그 순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살고 있다.

## 평범한, 그리고 나만의

나다움의 틀을 잡아 두되, 너무 확고하게 굳히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려고 할 때조차 틀에 갇히게 되기 때문이다.

### 세밀

기본적으로 '나다운 삶'이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타인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평범함', '보편적인' 면모에 집중하는 사람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평범함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 중 한 명이다.

모든 사람이 풍부한 감수성을 지니지는 않는다. 또한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상황마다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때때로 원인을 알지 못하면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나는 감정을 인지하는 초점이 아주 미묘하게 어긋나 있는 것 같았다. 감정을 느끼는 것보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납득하는 것은 넓게 생각해 보면 그다지 특별하거나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취급을 받았다. 이러한 면이 나는 내심 불만이였다.

얼마 전의 일이었다. 붙을 것이라고 절대 확신하지는 않았지만 60% 정도로 자신이 있던 시험에서 한 번 떨어졌다. 당시의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고, 잠시 후 '자존심이



상했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한 것은 감정의 이름이 아니었고, 집에 걸어가는 동안 계속 생각해봐도 그리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았다.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일부분과 이름을 알 수 없는 감정 탓에 울컥하는 부분이 충돌하고 있어 혼란스러웠을 뿐이었다. 하루 꼬박 그에 대해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시험 후기를 찾아보고 내용을 확인한 뒤에야 나는 그 감정이 울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험 감독관의 옳지 않은 행동이 가장 큰 이유였고, 그 외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감정을 납득하는 것으로 사고방식이 바뀐 것 또한 내가 자초한 일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탓할 수 없었다. 나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에 취해 과하게 들뜰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인지한 이후로 나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기로 했다. 속이 부정적으로 술렁거릴 때마다 이 감정을 느끼는 원인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원인을 찾으면 그것을 해결할 생각을 먼저 하는 것으로 사고방식을 바꿔 나갔다. 기쁜 일이 있으면 모든 일은 스쳐지나갈 뿐이니 크게 들뜨지 말자는 생각으로 스스로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스스로의 감정에 얽매지 않으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잘 알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나는 정말 사소한 것에서도 쉽게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다. 내가 정한 계획이 예상치 못하게 뒤틀리면 다음 계획을 바로 실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집중할 일이 있는데 주변에 인기척이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스로의 편리를 위해 융통성을 핑계로 논리와 상식을 무시하는 행위를 혐오한다. 사람을 대하는 것은 꺼려하지만 완전히 단절되면 조금이지만 외로움을 탄다. 사계절을 통틀어 겨울을 가장 좋아한다. 갓 20대가 되었을 때 생활습관이 나빠졌다가 건강까지 나빠진 경험이 있어서 바른 식사생활과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현재의 나는 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가 지날수록 성장하고 많은 것을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나다움의 틀을 잡아 두되, 너무 확고하게 굳히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려고 할 때 조차 틀에 갇히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다움'이라는 것은 세상과 마주했을 때 자신이 받아들일 것을 정하는 선과 같은 것이 아닐까.

## 목표에 도착했습니다

괜찮았다. 그들도 분명히 나와 같이 고생해서 배우는 시기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걸 늦게 했기에 고생할 뿐이었으니까.

### 제트

어느 국제공항의 출국장 문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선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도 펜스 밖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다 그 사람을 찾고 손을 흔들며 반긴다. 아직 나를 반기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자동문 밖을 넘어 광장으로 나왔음에도,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곳곳에서 나를 스친다. 간간히 들리는 영어 안내방송과 영어 안내 표지만만을 믿고 걸어 나간다. 그렇게 고생해서 배운 영어를 써먹을 일이 없더니만, 다른 나라로 나가니 영어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내가 공감할 수 없는 말들을 주고받으며 밝게 웃는 사람들. 그렇다. 언어는 바로 생각의 창인 것이다. 그 먼 곳에 떨어져도 짙막한 영어 실력으로도 최소한도로 내가 이곳에서 이뤄야 할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나는 대학교를 일본에서 다녔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일본어를 잘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무작정 일본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서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이 컸다. 그래도 학술적으로는 영어를 많이 쓸 테고, 선정한 학부도 국제학부였으니 영어가 어느 정도 되면 가서 생활하는 데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약간의 일본어만 알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겠지. 얼마나 순진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었던가. 그렇게 처음 도착한 일본의 공항에서, 나는 출국장을 나오자마자 싸늘한 현실과 마주했다. 안내데스크에서 마주한 그들의 영어는 내

가 알던 영어가 아니었다. 공항에서 도시로 나가기 위한 전철을 타기 위해 표지판을 따라 뱅뱅 돌기를 20여 분, 플랫폼에 도착하자 오장육부에서부터 치솟아오르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현실이구나. 4년의 시작을 이렇게 환상적으로 시작해야 하다니. 그렇게 유학생 숙소까지의 몇십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물어물어 찾아오려니, 웬만한 악몽보다 더 지독했다. 이민가방을 들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에게서 내가 알던 영어가 들렸기 때문이다.

부모님과 친척들께서 말씀하시기로 나는 굉장히 언어가 빠른 편이었다고 한다. 신문을 찢으면서 각각 떠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밀도끝도 없이 가나다를 이야기했다고도 하고, 4살 정도에는 나름대로 진지한 주제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강렬하게 남아 있는 어릴 적의 기억은 암송대회에서 영어로 된 성경 구절을 외웠던 것이었다. 그게 좋은 성과여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탔기 때문이었지만, 돌이켜 보면 언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 그 즈음부터였던 것 같다. 언어는 내게 단순히 말하고 듣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언어를 통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더 열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영어를 배우는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영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주변에 많았던 나는,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수준이 되기까지 다른 분들보다 다소 쉽게 닿을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다음 목표를 일본어 정복으로 하긴 했지만, 유학이라니! 돌이켜 보면 얼마나 충동적인 결정이었던가. 어학교처럼 언어를 배우기 위해 다니는 게 아닌, 그 언어로 지식을 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곳을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갔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아무리 국제학부 과정이고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대부분이라지만 일본어 수업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걸 입학식 이후에 확인하고는 마음에 드리우는 부담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노력은 고되고 성과는 더뎠다. 매 수업 때마다 교수님께서 판서하시는 내용을 카메라로 찍고 어떻게든 그려 보려고 노력했다. 포스트잇을 몇 뭉치씩 사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눈이 훑는 장소에 수십 장을 붙여두고, 떠오르면 떼고 떠오르지 않으면 내내 붙여두

기를 1년 동안 했다.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을 때는 영어로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고, 하루의 몇 시간 동안은 한국어도 영어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든 일본어만 말해서 살아보려 노력도 했다. 물론 다른 학생들은 내가 참여야 하는 노력 없이 성과를 이뤄내고 성적을 얻었고, 내가 꺾꺾대는 모습이 안쓰러웠던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힘들지 않냐는 위로 아닌 위로를 내게 건네기도 했다. 괜찮았다. 그들도 분명히 나와 같이 고생해서 배우는 시기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걸 늦게 했기에 고생할 뿐이었으니까.

그렇게 10년도 넘게 지난 지금, 많이 신경써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들은 그 힘들게 가까워졌던 내가 기특했던지 아직도 날 떠나지 않았다. 정말로 다행이다. 그렇게 고생해서 배운 영어와 일본어는 세월이 흐른 뒤에도 내가 사회에서 밥벌이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내가 인지하는 세상의 폭을 넓혀 주는 무기가 되었다. 언어가 아니었다면 나의 모습을 내가 제대로 설명하고 어필할 수 있었을까. 많은 세월이 지나 다시 간 그 공항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글자들과 사람들의 말들이 드디어 어떤 말인지 알게 되는 그 순간의 기쁨은 참으로 강렬했다. 그랬구나, 그렇게나 다들 반가웠구나, 기차는 곧 출발하는구나. 그저 한 순간 흘러가는 순간일지언정 온전히 그 곳에 흐르는 모든 언어를 마주하는 기쁨, 그것이 아마 언어를 배우기 위해 목표하고 노력하는 나의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 편집후기

청년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글을 쓴다? 이 기획을 처음 들었을 때 무릎을 탁 쳤다. 그 때, 굳이 꼭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을 가장 치열하게 사는 청년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또한 삶에서 꼭 필요한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글을 쓰는 것이 점점 경원시되는 지금의 시대에 과연 글을 쓰는 게 너무 어렵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글을 받아 보고서야 알았다. 기우였다는 것을.

이번 문집에서는 많은 청년분들께서 크게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경험들을 표현해 주셨다. 관계, 삶의 의미, 공부와 일, 목표와 노력, 새로운 시작, 행복, 나다움이라는 7개의 주제에 대한 글을 받아, '돌아보다', '느끼다', '바라보다'의 세 가지 분류로 엮어 이 문집을 내놓는다. 찬찬히 살펴보면 청년들이 꼭 주의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주제이자, 쉽게 쓰기 어려운 주제들이기도 하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경험들을 풀어내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지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의 청년들에게는 더욱더 어려운 일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받은 글들은 나를 세차게 꾸짖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삶을 만들었던 이야기들이 존재했고, 경중에 상관없이 그 경험으로 각자의 삶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이 문집에 실린 글에는 이름이 적혀있지 않다. 그저 함께한 청년들의 이름이 뒤에 쓰여

있을 뿐이다. 각 글을 쓴 사람의 이름을 넣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단순한 한 개인의 고민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노력으로 한정짓기에는 그 노력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참가자들의 동의를 얻어 개별 글에 쓴 사람의 이름을 뺐다. 혼자만이 아닌, 변화무쌍한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청년들의 경험을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13명의 청년들의 고민과 노력이 녹아있는 글들을 읽으면서 스스로도 많은 도전과 자극을 받았다. 부족한 능력으로 귀중한 글들을 교정하며 많이 눈물을 흘렸다. 그렇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란 샘에서 경험을 취하며 앞으로 나아가며, 오늘 삶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바쁜 와중에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글을 써 준 모든 참가자에게 감사드리며, 모든 청년의 삶에 도전과 성과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 문집을 맺는다.

## 01. 토트마을이장

나도 몰랐던 나만의 색깔을 여기서 만나다니, 사는 건 참 신기해!

## 02. 에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저를 돌아보고 미래를 꿈꾸게 되는, 유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 03. 웬

저의 경험과 생각들이 책으로 만들어져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성숙해진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새로운 글들을 쓰고 싶습니다!

## 04. 제트

각자 삶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현재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웅들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성장하신 뒤의 모습이 정말로 기대됩니다!

## 05. 김용휘

보여줄 글을 써보는 경험이 정말 좋았습니다. 글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06. 등냥

나 자신에 대한 글을 쓰며 막막함과 어려움, 부족함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 '나' 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07. 하루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집필해 보는 것이다. 글을 쓰는 것이 어려웠지만,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 08. 류동현

써낸 건 짧은 글 두 편이지만, 과정 속에서 인생 한 편을 통째로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 09. 쿠초냥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내 인생을 잠시나마 돌아보며 많은 의미를 찾았다. 그 과정은 항상 빛나지만은 않았지만, 모두 소중하고 빛나는 경험들이었기에 감사하다.

## 10. 도도도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간직해두고 있었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기회가 세상에 더 많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11. 이유정

나 자신에 대한 마음 가짐을 더 좋게 바꿀 수 있게 되었고, 나다움 속에 교훈들을 얻어가는 것 같아 보람있고 뿌듯한 시간을 갖게되었다.

## 12. 세별

뜻 깊은 기획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굳이 하지 않는 성미라 글을 제대로 써볼 일이 없었는데, 완성하고 다시 보니 쓰던 시간의 고민마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즐거웠어요!

## 13. 임수연

책을 작성하는 것은 '한 번쯤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며 꿈꿔왔던 일이었기에 패기넘치게 신청했다. 초반에는 여러 두려움에 한 글자 쓰는 게 두려웠지만, '관계'와 '삶'을 연관지어 글을 쓰고 난 현재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글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이야기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 14. 치즈전

글을 쓰기 시작하기 전 많은 고민과 주저함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막상 쓰기 시작하자 나의 낱생각들이 빠른 속도로 빈 여백을 채우기 시작했다. 나의 인생을 반추하기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 MOMENT

경험의 샘

1판 1쇄 펴냄 2021/10/22

지은이 김시온 외 13인

엮은이 김시온

펴낸이 김재홍

디자인 이다정

인쇄 프린터엑스

기획 및 제작 (주)커리어투어

(주)커리어투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2길 20, 605호(성동안심상가)

02-6954-2272

